

[미래인문학1] 동동 낙랑동 - 최인훈

줄거리

낙랑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왔음에도 왕자 호동은 깊은 슬픔에 빠진다. 호동은 낙랑의 패망과 가족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왕비의 말을 엿들으며 괴로워한다. 자신의 손으로 공주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과 공주를 이용해서 자명고를 쫓은 비밀을 차마 왕비에게 털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한 달 동안 호동은 두문불출하며 고뇌한다. 교과서에 제시된 부분은 그의 충직한 부장이 찾아와서 자명고를 쫓으라고 공주를 설득한 사람이 자신임을 밝히고, 호동이 정신을 차리기를 간곡히 말하는 장면이다.

: 그렇습니다.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성이 문을 열고 항복하면, 낙랑 왕 식구 세 사람은 모두 목숨을 살려 이곳에 모셔다가 왕비 마마 곁에서 사시게 작정이 된 일이 아니었습니까? 왕자님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호동: 어찌할 수 없는 일.

부장: 그렇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호동: 누가 그것을 모르는가.

부장: 돌아가신 낙랑 공주에게 미안해서 그러십니까?

호동:

부장: 공주께서도 어찌 원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왕자께서 두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두 분의 행복을 위해서 부탁하신 일인 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낙랑 공주였으니 어찌 원망하실 수 있겠습니까. 왕자님과 이 몸이 대왕의 뜻을 받들어 평화 교섭을 위해서 낙랑을 찾아갔을 때, 제일 반가워한 분이 공주님이셨고, 낙랑왕의 고집 때문에 화평 교섭이 잘 되지 않자 누구보다 근심하신 분이 공주님이셨지요. 그래서 두 나라가 싸워서 술한 사람이 죽느니보다는 ●자명고를 쫓아서 고구려가 이기게 하는 것이 좋다고 결심한 것도 낙랑 공주이시지요. 낙랑 나라가 그런 신묘한 복을 가진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지요. 대대로 낙랑왕의 식구밖에는 모르는 비밀을. 그래서 왕비 마마께서도 이 나라에 시집오신 몸이면서도, 그리고 의붓아드님이 징별군을 이끌고 낙랑으로 떠나게 되어도 입을 다물고 계신 그 비밀을 어찌 알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왕자님을 그렇게 따르시게 된 공주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말씀을 왕자님께서 들었을 때처럼 무서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고구려군이 싸움을 벌였더라면 ●섰을 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이었겠지요. 적은 먼저 알고 기다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호동: 그 말을 자네한테 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인지 어떤지 모르겠군.

부장: 무슨 말씀을. 또 놀라게 하시는군요. 말씀하시기 다행이지요. 그랬길래 제가 왕자님께 간곡히 그 복을 공주님 손으로 쫓게 하시라고 일러 드릴 수 있었지요. 그리고 저도 공주님께 그리하는 것이 왕자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공주님께 일러 드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호동: 뭐, 자네가? 그런 말은 안 하지 않았는가?

부장: 네 안 했지요. 그러나 잘못된 일이옵니까?

호동:

부장: 왕자님 몰래 공주님께 말씀 드리는 것이 좋다고 여겨져서 그리한 것입니다.

호동: 오, 그래서.....

부장: 무슨 일이 있었더랬습니까?

호동: 복을 쫓았다면서, 이 일은 왕자님 뜻을 묻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자꾸 다짐하더군.

: ❹ 열녀이십니다.

호동: 큰 고구려의 왕자가 한 여자의 손을 빌려 싸움에 이기는 것을 부끄러워 할까 봐 그랬던 것이로군.

부장: 열녀이십니다.

호동: 그 열녀의 덕을 본 나는 무어가 되는가?

부장: 영웅이십니다.

호동: 여자 힘을 빌린 영웅이라.

부장: 아닙니다. 큰할아버지 ❶ 주몽의 옛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금와왕의 마구 간에서 말을 기를 때 좋은 말에게는 먹이를 줄여서 여위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도 속임수를 쓴 것입니다. ❷

호동: 내가 속임수를 썼단 말인가?

부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웅은 속임수를 써도 영웅인데, 하물며 속임 뜻이 없이 얻어 낸 도움이 왜 부끄럽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몽께서는 남의 말을 굶겨서는 안 되고, 그 말을 가지고 달아났으니 말 도둑놈이겠습니까그러.

호동: 버릇없다.

부장: 제 말씀은 말을 굶겨야 하고 말을 뺏어 달아나야 옳았고 주몽 할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올시다.

호동: 그러나 주몽 할아버지는 원수를 속이지 않았느냐.

부장: 주몽 할아버지의 손자여. 큰 고구려의 왕자시여. 답답하십니까. 공주가 왜 적입니까? 내 편인 공주가 내 편을 위하다가 그만 — 따지고 들면 제일 못한 것은 낙랑왕입니다. 그가 고분고분하기만 했더라도 ❸ 늘그막을 사위 나라에서 장인 노릇을 했을 게 아닙니까?

호동: 그는 훌륭한 왕이었다. 그는 나를 잘 대접해 주었다. 그는 몇몇이 버젓이 싸워서 제 나라의 주인답게 죽었다.

부장: 그러시다면 낙랑왕이 공주를 베신 것이 잘하셨다는 말입니까?

호동: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부장: 왕자님, 큰 고구려의 왕이 되실 분입니다. 주몽 할아버지가 세우신 마을을 더 넓히실 분입니다. 마음도 크셔야 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기쁜 일도 자리 잡고 슬픈 일도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끔찍한 일도 자랄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나라를 맡아야 하실 몸인 것을. 왕자님, 낙랑 공주는 비록 아름다운 여자였사오나, 이 큰 고구려에는 아름다운 여자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 “ 옛적에 휘어이 휘이”(1979)

[이레신문학1] 젊은 느티나무

줄거리

‘나’는 젊고 아름다운 어머니와 함께 시골 외할아버지 댁에서 살고 있었다. 서울 모 대학교수(무슈 리)와 어머니가 재혼한 후 ‘나’는 서울로 와 새 아버지의 집에서 살게 되고, 이복 오빠가 되는 대학생 현규를 만난다. 그는 낯설어하고 어색해하는 ‘나’를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한다. 교과서에 제시된 부분은 ‘나’가 현규를 처음 만나던 날을 회상하는 장면이다.

‘그’를 무어라고 부르면 마땅할까.

오빠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이 나의 운명이다.

제작년 늦겨울 새하얀 눈과 얼음에 뒤덮여서 서울의 집들이 마치 얼음사탕처럼 반짝이던 날 ❶ 무슈 리에게 손목을 끌리다시피 하며 이곳에 도착한 나에게 엄마는 그를 이렇게 소개했다.

“숙희의 오빠예요. 인사를 해. 이름은 현규라고 하고.”

저 진보랏빛 양탄자 위에 서서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문리와 대학의 수재란다. 우리 숙희도 시골서는 꽤 ❷ 재원이라고들 하지만 서울 왔으니까 좀 어리벙벙할 테지. 사이 좋게 해 줘요.”

엄마의 목소리는 가버렸으나 눈에는 두려움이 어려 있는 것 같았다. 엄마는 열심히 청년의 두 눈을 주시하고 있었다.

브이넥의 다갈색 스웨터를 입고 그보다 얇은 빗갈의 셔츠 깃을 내보인 그는, 짙은 눈썹과 미간 언저리에 약간 위압적인 느낌을 갖고 있었으나 큰 두 눈은 서늘해 보였고, 날카로움과 동시에 자신(自信)에서 오는 너그로움, 침착함 같은 것을 갖고 있는 듯해 보였다. 전체의 윤곽이 단정하면서도 억세고, 강렬한 성격의 사람일 것 같았다. 다만 턱과 목 언저리의 선이 부드럽고 델리컬하여 보였다.

‘키도 어깨 폭도 표준형인 듯하고……. 흠, 우선 수재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 걸…….’

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채점을 하였다. 물론 겉보매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리만큼 나는 어리석은 계집애는 아니었지만.

내가 그의 눈을 쏘아보자 그는 눈이 부신 사람 같은 표정을 하면서 입술 한 쪽으로 조금 웃었다. 그것은 약간 겸연쩍은 것 같기도 하였지만 혼자 ❸ 고소하고 있는 것 같기도 보였다. 자기를 재어 보고 있는 내 맘속을 환히 들여다보는 때문일까? 그러자 나는 반대로 날카로운 관찰을 당하고 있는 듯한 긴장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지극히 단순한 태도로

“참 잘 왔어요. 집이 이렇게 너무 쓸쓸해서 아주 좋지 못했는데…….”

하고 한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았다.

나를 도무지 어린애로만 보았다는 증거일 게고 또 아마 엄마의 감정을 존중한 결과였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엄마의 얼굴에는 일순 안도와 만족의 표정이 물결처럼 퍼져갔다. 나는 이 청년이 엄마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짐작하였다. 말하자면 그들 인공적(?) 모자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세심한 배려가 상호 간에 배풀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무슈 리는 매우 대범한 성질이어서 ❹ 만사를 복잡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았다. 그는 그저 미소를 띠고 우리를 바라다볼 뿐이고, 내가 고단할 게라는 소리를 몇 번이나 하였다.

어쨌든 그는 그로부터 나를 숙희라고, 쉽고도 간단하게 불러 오고 있다.

“헤이, 숙!”

하기도 한다. 그리고 나에게 무조건 관대하였다. 지나치리 만큼. 그래서 때로는 섭섭하리 만큼.

그러므로 그가 이즈음 내 방에 와서 배가 고프다고 한다거나 손 같은 데에 약을 발라 달라고 하게 된 것은 나에게서는 대단히 귀중한 변화인 것이다.

그것은 어쨌든 내 편에서는 그를 오빠라고는 도저히 부를 수 없었다. 처음에는 너무 생소하여서, 그리고 나중에는 또 다른 이유들로.●

이것은 무슈 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렵기보다는 몇 갑절이나 힘든 일이었다. 나는 자기가 대단한 고집쟁이인지, 또는 부끄럼쟁이인지 분간할 수 없다. 나의 이런 곤란을 그도 엄마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모양으로 요즈음 내가 그 말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애를 쓰지 않고도 적당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저편에서 고려하여 말을 걸어 준다. 이런 의미에서 사양 없이 나를 곤경에 몰아넣곤 하는 것은 무슈 리 한 사람뿐이다.

- “ ”(1960)

◆요점 정리

- 지은이 : 강신재
 - 갈래 : 단편 소설, 순수 소설, 성장 소설(숙희는 소녀적 사랑을 거치면서 어느덧 성숙한 사랑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즉, 감각만으로 다가온 사랑을 현실 속으로 끌어넣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 배경 : 1950년대 6·25 전쟁 이후 S촌의 느티나무가 있는 시골,
 - 경향 : 낭만주의
 -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 표현 : 등장 인물의 내면 심리와 외부 사건을 적절히 조화시켜 작품의 예술성을 살리고 있고, 아울러 주인공 숙희가 이복오빠 현규에게 느끼는 사랑의 감정을 내적 독백 형식으로 서술자의 독백체로 미묘한 감정을 토로 서술함으로써 간접표현 방식의 효과를 살리고 있다, 감각적 이미지로 인물을 부각함.
 - 문체 : 간결하고도 감각적인 문체(외래어와 감각어를 사용하여 속도가 빠르고 명확한 표현이면서도 감각적이고 함축미와 여운이 있는 문체를 구사하고 있다. 특히 이 글의 서두에 나오는 '비누 냄새'는 감각적인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동기 제시의 역할을 한다)
 - 성격 : 여성적, 서정적, 감각적인 부드러움
 - 제재 : 이복 남매의 사랑(전처(前妻) 소생의 아들과 후처(後妻)가 데리고 온 딸 사이의 사랑)
 - 구성 : 만남 - 헤어짐 - 만남의 가능성
- 발단 - 나는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해 이복 오빠인 현규를 만나게 된다.
- 전개 - 나는 현규를 이성으로 느끼며 사랑의 감정을 갖기 시작한다.
- 위기 - 현규 친구로부터 나에게 온 연애편지에 대해 현규가 질투하는 모습을 보인다.
- 절정 - 괴로운 마음을 안고 시골로 내려간 나에게 현규가 찾아온다.
- 결말 -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먼 훗날을 약속하며 각자 현재의 길을 가기로 다짐한다.
- 주제 : 첫사랑의 열정과 순수. 현실의 구속을 극복하고 이루고자 하는 청춘 남녀의 순수한 사랑
 - 인물 :
 - 나(숙희) : 18세의 소녀로 주인공이며 서술자. 이복 오빠 현규를 사랑하는 순수한 18세의 여고생. 시골 외가에서 후처가 된 어머니를 따라 상경함. 이복 오빠(현규)와의 근친 상간이라는 윤리적 갈등을 겪는 등 이룰 수 없는 사랑으로 고뇌함
 - 그(현규) : 22세의 대학생. 숙희의 이복 오빠로서 건강하고 세련된 젊은이. 이복 동생 숙희를 이성(異性)으로 느끼며 사랑에 빠져 고민하지만 윤리적 갈등을 순수한 의지로 극복한다.

滿開(만피)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엄마 : 젊어서 남편과 사별하고 지난날 혼담이 있었던 므슈 리와 재혼한다.
 므슈 리 : 현규의 아버지이자 숙희의 새아버지. 성격이 유(柔)하고 과묵한 경제학 교수
 지수 : 현규의 친구이며 장관의 아들. 숙희를 좋아하여 연애 편지를 보낸 일로 현규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킨다.

- 출전 : <사상계>(1960)
- 줄거리 : '나'(숙희)는 젊고 아름다운 어머니와 함께 시골 외할아버지 댁에서 살고 있었다. 서울 모 대학 교수(므슈 리)와 어머니가 재혼한 후 '나'도 재작년에 서울로와 S촌에 있는 새 아버지의 집에서 살게 되고 새 아버지의 아들, 곧 이복 오빠가 되는 대학생 현규를 만난다. 그는 낯설어하고 어색해 하는 '나'를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한다. 18살의 여고생인 숙희와 22살의 대학생인 현수는 한 집에 사는 오누이와 같은 관계이다. 즉 숙희는 후처가 데리고 온 딸이고 현규는 전처 소생의 아들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차차 오누이 아닌 오누이의 관계에서 현규를 오빠가 아닌 이성으로 느끼며 그를 사랑하게 되고 이는 뜻하지 않은 이 곳 생활의 고통이 되었다. 현규에 대한 사랑에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었지만, 그것은 엄마와 므슈 리, '나', 현규 모두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이가 혈족이 아닌, 단지 스물 두 살의 청년과 열여덟 살의 계집아이일 뿐이라는 진실을 부정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나'는 고뇌하게 된다. 그러던 중 숙희가 알고 있는 K 장관의 아들이자 의과대학생인 지수가 숙희에게 러브레터를 보내자 현규는 분한 마음에 숙희의 뺨을 갈기고, 숙희는 현규의 사랑을 확인하고 기뻐한다.

그들은 행복감과 고뇌를 동시에 안은 채 오누이 관계에서 연인 관계로 깊어 간다. 그러나 갑자기 엄마가 므슈 리를 따라 미국으로 가게 되어 현규와 둘이서만 집에 있게 될 상황에 놓이자 '운명적 사건'을 예감한 '나'는 고민 끝에 서울을 떠나 시골 할머니 댁으로 간다. 그 곳에서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현규가 찾아와 서로 진실된 감정을 지닌 채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서 미래를 약속하는 마음으로 각자 현재의 길을 걷자고 약속한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고, 그가 떠난 후 젊은 느티나무를 껴안으며 이제 그를 더 사랑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젊은 느티나무는 이들 연인의 기쁨을 품은 슬픈 맹세를 듣는 증인이 된다.

- 작품 개관 : 이 작품의 기본 골격은 '만남'과 '떠남', 그리고 '만남의 가능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작자는 사회 규범상 용납될 수 없는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의 갈등을 윤리적 차원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인물들이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소해 가는가에 초점을 두고, 사회 규범을 초월하는 사랑의 순수성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학생들이 작품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문학적 의미를 창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문제 의식을 제공해 준다.

●분위기의 특징과 기능

한 소녀의 성숙을 다룬 성장 소설이지만, 사랑이 진실에 근거하고 삶에 밀착된 끈끈한 것이 아니라고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사실 이 작품의 한계점이라고 지적받을 수 있는 점은 사랑이 현실적이 아니고 대단히 비현실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감각적 분위기 속에 젊은이의 새로운 사랑 방식의 하나를 제시했고,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매우 세련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런 이중적인 측면은 고답적 분위기와 감각에 의존하는 특이성과 이 미지화 기법에 의해 드러난다.

특징	요소	기능
고답적, 비현실적 고답(高踏 : 속세에 초연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것을 고상하게 여김.)	인물	현규 아버지 : 므슈 리, 외국 여행, 경제학 교수, 담쟁이 넝쿨집에서 살고 있음 엄마를 둘러싼 낭만적 색채 현규 : 수재, V 네크의 다갈색 스웨터를 입음 지수 : 장관의 아들, 셰터 사냥개를 몰고 다님

		숙희 : 시골에서 발레 개인 교습, 메이 쿤에 선발, 테니스를 즐김 (모두들 비현실적인 인물들로 상류 계층의 사람들로 현실적인 삶과 괴리된 사람들로 이국적인 특징이 두드러짐)
후각	비누 냄새	신선한 분위기, 슬픔과 고통을 승화, 숙희가 미성숙의 소녀적 발상을 하고 있고, 감각적인 느낌이 강한 판단을 하고 있음
이미지화	현규에 대한 인식	현규의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을 즐기고 좋아함. 실체로서의 현규이기보다 감각에 투영된 영상임.

이 작품에서 숙희와 현규의 사랑은 사회적 금기와 본능적 감성이 충돌함으로써 일어난 것으로, 소설적 갈등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일상적 삶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현실과 세계에 대해 눈뜨기 시작하는 한 순수한 영혼의 모험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복남매의 사랑이라는 소재가 통속적이며 다소 비윤리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작가의 유려한 문체가 이 소재를 잘 처리함으로써 문학적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이 던지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두 주인공의 마지막 대화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결론은 지나치게 낭만적이지만 한 것은 아닐까?(출처 : 한계전 외 4인 공저 문학교과서)

이해와 감상1

소설은 자아와 세계의 화해를 모색하는 여정을 그린다. 여기서 말하는 화해는 마땅히 있어야 할 세계와 지금 존재하는 세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일이다. 현실 저편에 있는 아름다움에 이르기 위해서 현실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지 현실에 안주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 소설에서도 현실을 긍정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깨달음이 그려져 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한 필치로 젊은 남녀의 애정과 그 갈등을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은 언뜻 보면 통속적인 구도를 지니고 있다. 그러한 통속적 구도에도 불구하고 문학적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있다.

이 소설에서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는 숙희와 현규의 사랑은 사회적 금기와 본능적 감정 사이의 충돌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세계에 대해 눈뜨기 시작하는 한 순수한 영혼의 모험인 것이다.

이해와 감상2

이 작품의 기본 골격은 '만남'과 '떠남', 그리고 '만남의 가능성'으로 요약된다. 열여덟 살의 민감한 감수성을 지닌 숙희는 이복 오빠로 만난 현규에게서 '비누 냄새'처럼 상큼하고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만, 그것은 사회적으로 금지된 사랑이기에 그의 결을 떠난다. 현규가 숙희를 찾아가서 이들은 또 만나지만, 자신들의 사랑을 지속시키기 위해 다시 떠날(헤어질) 것을 약속한다. 그것은 또 다른 만남을 위한 떠남이며 그래서 기쁨을 품은 슬픈 약속인 것이다. '젊은 느티나무'는 두 여인의 약속을 듣는 증인이 되며, 꿈을 잃지 않는 젊음을 상징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작가는 숙희와 현규의 애정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고 그들의 감정의 흐름을 산뜻한 감각을 지닌 세련된 문장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런 소재의 작품이 흔히 보이기 쉬운 신파조(調)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있다.

이 작품은 사회 규범상 용납될 수 없는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의 갈등을 윤리적 차원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인물들이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소해 가는가에 초점을 두고, 사회 규범을 초월하는 사랑의 순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끝까지 맑고 청순한 사랑의 감정을 깨뜨리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현실의 아픔을 현명하게 받아들이는 숙희와 현규의 의지가 감동을 줄 만하다.



● '젊은 느티나무'의 결말 처리

滿開(만피)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이 소설은 작자의 섬세한 여성적 필치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금지된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 내용이 결코 불쾌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것은 무척이나 신선한, 그리고 밝은 표정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전처 소생의 아들과 후처가 데려온 딸, 그들 사이엔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다. 그들이 이성의 감정을 느낀 것은 오히려 당연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엔 깊은 인공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갈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그들의 관계가 불륜이라든가, 도피, 죽음 등으로 끝맺었다면 이 작품은 삼류 소설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한다. 이 작품을 진정한 작품이게끔 한 것은 결말 부분의, 다분히 시적인 처리에 있다고 하겠다.

●'젊은 느티나무'의 '사랑'의 의미

소설의 내용만을 본다면 근친상간의 금기를 담고 있는 충격적인 것이다. 숙희라는 한 여고생이 홀어머니의 개가로 현규라는 오빠가 생기게 된다. 시골에 살고 있던 그녀는 이제 서울로 올라와 이 오빠와 한지붕 밑에서 생활하면서 그에게 사랑을 느끼게 된다. 사실상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는 관계이지만 법률상으로는 엄연히 남매간이기 때문에 둘의 사랑은 사춘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독자가 느끼는 감정은 근친상간(近親相姦)에 대한 혐오감이나 어두운 운명에 대한 부조리의 감정이 아니다. 이 소설의 주제를 단적으로 요약해 주는 것은 작품 첫머리의 문장, “그에게서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이 소설은 맨 앞의 이 한 줄을 위해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춘기 소녀의 예민한 후각에 포착된 이 아름다움이 작품 전면의 분위기로 흘러 주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규라는 청년은 이십대 초반의 건강한 남성이며 숙희 또한 여고에 재학중인, 따라서 육체적으로 성숙한 여성이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에는 구체적인 남녀의 육체가 결여되어 있다. 둘의 사랑에는 오직 비누 향기와 같은 감각만이 모호하게 존재할 뿐이다. 여기에는 사춘기 소녀의 "슬프고 괴로운 시간, 젊은 비누의 향료와 함께 가슴속으로 저릿한 것이 퍼져 간다."는 감정을 위해 상황이 존재한다. 아름답고 순결한 한 소녀가 수재이면서 스포츠도 만능인 청년에게 사랑을 느낀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 성장을 위한 통과제의로서 첫사랑, 그 경험의 절실함이 갖는 아름다움은 부인하기 힘든 것이다. 작자는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상황 설정으로 법률상의 남매간을 이용한다. 그러므로 서설 말미에서 그녀가 현규의 육체 대신 젊은 느티나무의 등걸을 껴안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소설 초반의 '비누 냄새'로 대변되는 추상적인 감각은 십대의 그녀가 남성에게 느낄 수 있는 한계에 해당한다. 숙희에게 아직 남녀간의 사랑은 미지의 그 무엇일 뿐, 구체적인 육체적 접촉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 일상의 생활을 통해 체득되지 않은 사랑은 신비롭고 아름답다.

숙희가 느끼는 사랑은 육체적 접촉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현실적 사랑이 아니며, 젊은 느티나무를 껴안은 것으로 소설이 멈춤으로써 갈등을 야기시킨 일상적 인습의 부조리를 조금도 건드리지 않는다. 이 사랑은 현실의 관점에서 보건대 현저히 미숙한 것이다. 그러나 숙희의 사랑은 아름답다. 이것은 우리가 어린이의 아무것도 모르는 눈동자에서 천사의 느낌을 받는 것과 동질한 계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정말 천사적인 것은 현실의 추악함의 부단한 도전 속에서도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무지함이 천진 난만하여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 감정은 우리가,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 당위의 세계, 유토피아를 과거의 세계 - 에덴, 무릉도원 등 현실에 의해 아직 훼손되지 않은 세계로 설정하는 것과 흡사한 것일 수 있다. 인간은 아직 훼손되지 않았던 유년 시절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을 동질적으로 갖고 있다.(출처 : 최혜실, '생활과 대립 구도로서의 미')

●강신재(康信載 1924-)

서울 출생. 1949년 '문예'에 '얼굴', '정순이'가 추천되어 등단하였다. '안개', '눈물' 등 가정에 얽매인 여성의 운명과 여성적 사랑의 심리를 섬세하고 감각적인 문체로 묘사한 단편을 주로 발표하였다. 1962년에 전쟁으로 인한 젊은이의 비극적인 애정을 그린 "임진강의 민들레"를 발표한 후로 장편 소설 창작에 주력했다. 그의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작품은 현대인의 애정, 도덕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재치 있고 발랄한 문체, 세련된 감각과 인물 묘사의 기교 등의 특징을 갖는다. 1959년 '절벽'으로 한국문학상을 수상했고, 1967년에는 '이 찬란한 슬픔'으로 여류문학상을 수상했다. 주요 작품에는 '팬터마임', '절벽', '젊은 느티나무', '임진강의 민들레', '오늘과 내일' 등이 있다.

[미래인문학1] 생산을 영두에 둔 작품생산

(1) 생산을 영두에 둔 작품 수용

누구나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가수나 화가가 아니더라도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리듯이, 자신의 삶을 문학적 언어를 통해 진

실되게 표현하고 싶어 한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작품을 해석하는 글쓰기, 작가와 가상의 대화 나누기, 작품의 일부나 전체를 재구성하기 등의 활동은 우리가 가진 표현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들이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이후 본격적인 창작 활동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글쓰기 독자는 일방적으로 작가의 의도에 따라 작품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 가면서 읽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자는 작품에 공감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며,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하기도 하면서 주체적으로 작품을 수용한다. 구광본의 ‘강’을 읽고 어느 학생이 쓴 글의 일부를 보기로 하자.

혼자서는 건널 수 없는 것
오랜 날이 지나서야 알았네
갈대가 눕고 다시 일어서는 세월,
가을빛에 떠밀려 헤매기만 했네.

한철 깃든 새들이 떠나고 나면
지는 해에도 쓸쓸해지기만 하고
얇은 물에도 휩싸이고 말아
혼자서는 건널 수 없는 것

- , ‘강’

처음 이 시를 읽으면서 난 몇 가지 단어를 떠올렸다. 시어를 그대로 해석해서 이해하자니 ‘왜 혼자서 건널 수 없는가?’라는 의문이 생겼다. 하지만 ‘강’이란 단어를 ‘인생’이라는 단어로 바꿨을 때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기가 훨씬 쉬웠다. 추측하건대, 시적 화자는 인생의 고개를 넘은 40대 중년의 남자이고, 쓸쓸한 늦가을의 강변에서 무언가를 그리워하며 이 시를 썼을 것이다. 시적 화자는 강을 ‘혼자서는 건널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생이라는 강을 혼자서 건너기에는 세상이 너무 힘들고 벅차다. 젊었을 때는 젊은 혈기에 부딪치고, 상처 입으며, 또 부딪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고비를 넘고 나서야 비로소 인생이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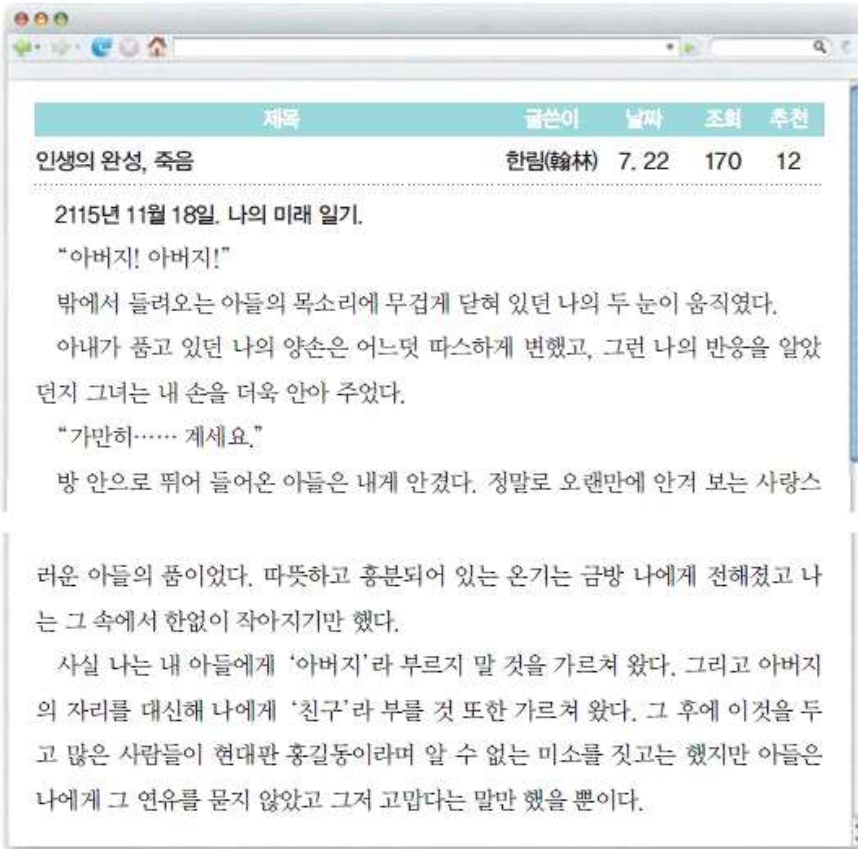
- 학생의 감상문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강’을 ‘혼자서는 건널 수 없는 것’이라 하였는데, 학생은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강’을 ‘인생’이라는 말로 바꾸어 자기 나름의 의미를 찾아내고 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내는 과정은 자신만의 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새롭게 구성하기 다음은 희귀병으로 죽어가는 모리 교수가 제자들과 만나 나

죽

음의 얘기를 엮은 미치 앨범의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을 읽고, 한 학생이 쓴 글의 일부이다.



이 학생은 작품을 읽으면서 미래의 자신과 관련지어 작품을 수용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는 일기를 쓴 것이다. 이렇듯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작품을 재해석하여 씌으로써 자신의 삶을 문학적으로 성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작품을 생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작품과 함께에서는 문정희의 시 '비망록', 양귀자의 소설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임춘의 가전체 소설 '공방전'을 읽고, 작품을 재구성하는 활동을 해 보자

[미래n문학1] 희망록 - 문정희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가난한 식사 앞에서
기도를 하고
밤이면 고요히
일기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구겨진 속옷을 내보이듯
매양 허물만 내보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사랑하는 사람아
너는 내 가슴에 아직도
눈에 익은 별처럼 박혀 있고

나는 박힌 별이 돌처럼 아파서
이렇게 한 생애를 허둥거린다

- “ 몸속에 살고 있는 새를 꺼내 주세요”(1990)

[미래인문학1] 길 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양귀자

그 첫 번째 예술가

그이는 늘 흰 가운을 입고 있다. 그리고 여자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류 조각가를 상상할지도 모르겠다. 아니, 그 짐작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이가 빚어내는 작품도 일종의 조각이라면 조각일 수도 있다.

그이는 매일 아침 9시에 일터로 나와서 다시 저녁 9시가 되면 가운을 벗고 집으로 돌아간다. 일터에서의 그이는 다소 무뚝뚝하고 뻣뻣하다. 남하고 싱거운 소리를 나누는 일도 거의 없다. 잘 웃지도 않는다. 오히려 늘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 얼굴로 그이는 늘 일을 하고 있다. 그이가 만드는 작품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므로 하기야 설 틈도 많지 않다. 묵묵히 일만 하고 있는 그이를 우리는 ‘김밥 아줌마’라고 부른다. 따라서 그이가 만드는 작품은 당연히 김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이의 김밥은 보통의 김밥과는 아주 다르다. 언제 먹어도 그이만이 낼 수 있는 담백하고 구수한 맛이 사람을 끌어당긴다. 그이의 김밥은 절대 맛을

속이지 않는다.

김밥 아줌마는 작품을 만들 때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막 화를 낸다. 누군가 쳐다보면 마음이 흔들려서 실패작만 나온다는 것이다. 김밥을 만들고 있을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척을 하지 않는다. 한 번 더 말을 시키면 여지없이 성질을 내며 일손을 놓아 버린다. 그이는 파는 일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김밥을 만드는 그 행위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언젠가 나도 무심히 김밥 마는 것을 구경하고 있다가 당했다. 쳐다보고 있으니 김밥 옆구리가 터지는 실수를 다 한다고 신경질을 내는 그이가 무서워서 주문한 김밥을 싸는 동안 떨쳐감치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먹어본 김밥은 그이에게 당한 것쯤이야 까맣게 잊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그 맛이 환상적이었다. 그 김밥은 돈 몇 푼의 이익을 위해 말아진 그런 김밥이 아니었다. 나는 그래서 그이의 김밥을 서슴지 않고 ‘작품’이라 부른다.

그 두 번째 예술가

그는 이제 막 오십 고개를 넘은 남자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머리에 얹어 놓고 있는 ①빵떡모자와 아직은 듬직한 몸체, 그리고 늘 웃는 얼굴의 그이는 일년 열 두 달 거의 빠짐없이 하루에 두 차례씩 내가 사는 연립 주택의 마당에 나타난다. 자식들의 결혼 날이거나 아니면 길이 뽕뽕 얼어붙어 오르막인 이곳까지 트럭이 못 올라오는 한겨울 며칠을 제외하면 오전 10시 무렵과 오후 4시 경에는 어김없이 주홍 휘장을 두른 그의 트럭을 볼 수가 있다.

그가 등장하는 모습은 언제나 일정하다. 먼저 귀에 익은 바퀴 구르는 소리와 함께 그가 운전하는 주홍 트럭이 언덕배기를 올라온다. 차를 세운 다음에는 얼른 확성기를 들고 운전석에서 뛰어내린다. 빵떡모자를 쓴 그는 확성기에 대고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골라 온 물건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 양파나 버섯 있어요. 싱싱한 오이와 배추도 있어요. 엄청 달고 맛있는 복숭아나 포도 있어요…….

그 다음엔 그를 기다리고 있던 이웃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드는 것이다. 언덕배기를 내려가서 또 버스를 타고 가야 이웃 동네의 시장이 나오는지라 이웃들은 거의가 그에게서 필요한 먹을거리들을 사고 있다. 게다가 뜨내기 행상 트럭도 아니고 고정적으로 드나드는 단골인지라 물건만큼은 믿고 사도 좋았다.

하기야 그에게는 자신의 트럭 위에 있는 온갖 야채와 과일이 국내 최고라는 자신이 차고도 넘친다. 최고의 품질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행상에 대한 그의 소신은 실제에 있어서도 과히 틀린 바는 없다. 그는 오이 하나를 사는 손님일지

라도 이 오이의 산지는 어디이고 도매가격이 얼마나 되는 최상품인가를 일일이 설명하느라고 늘 입이 쉴 새가 없다.

그 뿐이 아니다. 지난번에 사 간 그 고구마가 과연 꿀맛이었는지, 엇그제 사 간 배추로 담근 김치가 연하고 ●사근사근한지도 고객들한테 끊임없이 확인한다. 그런 과정에서 행여 고객의 불만이 포착되기라도 하면 그는 아예 장사고 뭐고 없이 그것의 ●규명에만 매달린다. 그 고구마가 달지 않은 것은 삶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고구마를 도매 시장에서 떼 온 자신의 안목이 모자라서였는지를 속 시원하게 판가름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이 바로 주홍 트럭의 주인인 빵떡모자 아저씨인 것이다.●

그는 자신이 파는 물건이 최고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트럭 행상을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손님이 없을 때는 늘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다듬는 일에 몰두해 있는 사람이고 호박 한 개를 집을 때도 두 손으로 조심조심 그것을 받들어 올린다. 그는 자기가 팔고 있는 쪽갯이나 양파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그가 다른 화제를 입 밖에 올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는 언제나 마늘이나 포도, 쪽파나 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것들이 왜 좋은 물건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가령 이런 식이다.

“이 마늘 보세요. 어느 한군데도 흠이 없잖아요. 요렇게 불그스름하고 중간 짜리가 상품이지요. 그리고 요 반듯반듯하게 패인 줄을 보세요. 이런 것은 짜개면 어김없이 여덟 쪽이지요. 이보다 더 좋은 마늘 파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정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 말고 또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나 그날로 이 장사 집어치울 거예요. 아니, 정말 그렇게 한다니까요.”

내가 보기에는 만약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장사를 집어치우는 것으로 끝낼 그가 결코 아니다. 아마 그 이상의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세상에서 예술가들만큼 자존심이 센 사람은 없으니까. 그리고 최고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주홍 트럭의 그는 분명 예술가임이 틀림없으니까.

- “ 만만 사람”(1993)

[미래인문학1] 공방전 - 임춘

공방(孔方)의 자는 관지(貫之)다. 그의 선조는 옛날에 수양산에 은거하여 동굴에서

살았는데, 일찍 세상으로 나왔지만 쓰이지 못했다. 비로소 황제(黃帝) 때에 조금씩 쓰였으나, 성질이 강경하여 세상일에 매우 단련되지 못했다. 황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 그를 살피게 하니, 관상 보는 사람이 자세히 보고 천천히 말하기를 “산야(山野)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칠어서 사용할 수 없지만, 만약 임금님의 쇄를 녹이는 용광로에서 갈고 닦으면 그 자질은 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임금이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만드는 자리이니, 임금님께서 완고한 구리와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이로부터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 이후 난리를 피하여, 강가의 숲 화로로 이사를 해 가족을 이루고 살았다.

공방의 아버지인 천(泉)은 주나라의 태재(太宰)로, 나라의 세금을 담당했다. 공방의 사람됨은 겉은 둥그렇고 가운데는 네모나며,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했다. 공방은 한나라에서 벼슬하여 ①홍려경(鴻臚卿)이 되었다. 당시에 오나라 임금인 비(濞)가 교만하고 참람하여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는데, 공방이 비를 도와 이익을 취했다. 호제(虎帝) 때에 나라가 텅 비고 창고가 텅 비게 되었는데, ②호제가 이를 걱정하여 공방을 부민후(富民侯)로 임명했다. 그 무리인 ③염철승(鹽鐵丞) 근(僅)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근이 항상 공방을 가형(家兄)이라고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공방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는데, 이미 국가의 재산을 총괄하면서 ④자모(子母)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것을 좋아했다. 공방은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에는 도자기와 철을 주조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백성들과 함께 조그만 이익을 다투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곡식을 천대하고, 화폐를 귀중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근본을 버리고 끝을 좇도록 하고, 농사짓는 것을 방해했다. 당시에 ⑤간관들이 자주 상소를 올려 공방을 비판했지만, 호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방은 교묘하게 권세 있는 귀족들을 섬겨, 그 집을 드나들면서 권세를 부리고 관직을 팔아 관직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공경들이 절개를 꺾고 공방을 섬기니, 곡식을 쌓고 뇌물을 거두어 문권과 서류가 산과 같이 쌓여 가히 셀 수가 없었다. 공방은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대할 때 현인과 불초한 것을 가리지 않고, 비록 시장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그와 사귀었으니, 소위 시장 바닥 사귀미란 이런 것을 말한다. 공방은 때로는 동네의 나쁜 소년들을 따라다니면서 바둑을 두고 ⑥격오(格五)를 일삼았다. 그러나 승낙을 잘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를 두고 “공방의 말 한마디는 무게가 금 백 근과 같다.”고 했다.

원제(元帝)가 즉위하자 ⑦공우(貢禹)가 글을 올려 “공방이 오랫동안 바쁜 업무에 매달려 농사의 중요한 근본에는 힘쓰지 않고 다만 전매의 이익에만 힘을 썼습니다. 그리하여 나라를 좀먹고 백성들에게 해를 입혀 공사가 모두 피곤하게 되었으며, 뇌물이 난무하고 공적인 일도 청탁이 있어야만 처리됩니다. ‘지고 또 탄다. 그러면 도둑이 온다’라고 한 ‘주역’의 명확한 가르침도 있으니, 바라건대 공방의 관직을 파면해 탐욕과 비루함을 징계하십시오.”라고 했다. 그때 마침 권력을 잡은 사람 중 ⑧곡량학(穀梁學)으로 관료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변방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데 군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공방의 일을 미워하여 공우의 편을 들었다. 그러자 원제가 공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공방은 관직에서 쫓겨났다.

공방이 문하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전에 임금님을 만나, 임금님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교화하여 장차 국용이 넉넉해지고 백성들의 재산이 풍부해지도록 했다. 이제 조그마한 죄로 내쫓김을 당했다. 그러나 등용되고 쫓겨나는 것은 나에게서는 이익도 손해도 없다. 다행스럽게도 남은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실오라기처럼 살았으니, 앞으로 입을 묶어 말을 하지 못해도 세상에 몸을

불이고 살아갈 것이다.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떠돌면서 강희(江淮)의 별장으로 되돌아가 약야계(若冶溪) 위에서 낚싯대를 드리우고, 고기를 잡고 술을 사서 ❶ 민상(閩商), ❷해고(海賈)와 함께 술배를 타고 떠다니면서 남은 생애를 마칠 것이다. 비록 천종록(千種祿)과 ❸오정(五鼎)의 음식이 있다고 해도, 내가 어찌 그것 때문에 이러한 삶과 바꾸겠는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의 계획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다.

- “ 선생집”(1222)

[미래엔 문학II] 또 다른 고향-윤동주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白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 작용(風化作用) 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魂)이 우는 것이냐

●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 바람과 별과 시”(1948

■요점 정리

● 지은이 : 윤동주

● 갈래 : 서정시, 자유시

● 성격 : 상징적, 성찰적, 관조적, 의지적, 저항적

● 구성 :

① 귀향과 자아 분열(제1,2연) - 어두운 현실을 느낌

② 두 자아의 분열과 갈등(제3연) - 자아의 갈등

③ 현실적 자아를 일깨우는 소리(제4,5연) - 불안과 강박 관념

④ 이상향의 동경(제6연) - 이상향의 동경

● 제재 : 고향의 상실

● 주제 : 이상향에 대한 동경

● 특징 : 자아의 대립에 의한 갈등 구조를 바탕으로 상징적 시어를 통해 시적 화자의 처지 및 내면을 드러내어 주제 의식을 표현하고,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간의 갈등 구조를 바탕으로 하며, 시대 현실에 고뇌하는 지식인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내용 연구

고향[현실 도피적 세계]에 돌아온 날 밤에

내[나는 분열된 두 자아 사이에서 갈등하는 현실적 자아] 백골(白骨)[나약한 현실 도피적 자아 / 현실에 안주하여 살고자 하는 도피적 자아]이 따라와 한 방[무자유스런(단한) 세계]에 누웠다.

어둔 방[단한 세계 / 암담한 상황 / 갈등의 공간이면서 또 다른 고향을 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공간]은 우주[열린 세계]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열린 세계로 인도하는 존재 - 현실 안주를 꾸짖음]이 불어온다.

어둠[일제 강점기로 암담한 세계] 속에 곱게 풍화 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갈등하는 현실적 자아]

백골이 우는 것이냐?['백골'과 '아름다운 혼' : 시적 화자가 의식의 분열을 일으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구조로 되어 있음]

아름다운 혼[이상적 자아 /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자아]이 우는 것이냐?[어둠 속에서 ~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 분열된 자아를 바라보며 느끼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는 상실감과 비애감의 표현]

지조(志操) 높은 개는[나약한 현실적 자아를 꾸짖는 존재로 어둠을 짓는 개]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우국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국지사의 높은 혼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화자를 '또 다른 고향'에 가도록 재촉한다는 점에서 화자를 구속하는 존재이기도 함 / 나약한 현실적 자아를 꾸짖는 존재 / 화자가 갈등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게 하는 획기적 계기를 마련해줌]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가자'라는 반복을 통해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음]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화자가 추구하는 이상 세계 혹은 광복된 조국을 의미]으로 가자.

[자아의 정체성 회복과 자아 분열의 극복 의지]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일제 강점하의 부정적 현실 공간을 뛰어넘은 영원한 삶에 대한 동경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윤동주의 개인사를 알아야 된다. 윤동주는 고향인 북간도에서 아름다웠던 유년 시절을 보냈으나 서울 유학 생활을 하면서 현실의 암담한 상황을 깨닫게 된다. 그후 고향에 돌아왔으나 마음에 그리던 고향을 상실하고 내적 자아가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를 형상화한 시로 '나, 백골, 아름다운 혼'의 관계를 파악하고 접근해야 한다.

이 시는 전 6연으로 이루어진 조금 난해한 작품이다.

제1연은, 그리던 고향에 돌아왔으나 그 곳에는 유년의 평화로움이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어둠으로 가득찬 장소일 뿐이다. 이미 육신이나 영혼이 함께 편안히 안주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다. 고향에서 안주하고자 하는 '나'는 이 암담한 식민지 현실 속에서 이미 죽어 백골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

제2연에서는 닫힌 세계('어둔 방')에 있으려니 '나'를 열린 세계('우주')로 부르는 바람 소리가 들린다. '하늘에서 불어 오는 바람'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나'를 새로운 세계로 향하게 한다.

제3연은 고향에 돌아와 자아가 분열되어 갈등을 일으키는 현상을 형상화한 것이다. 현실에서 안주하고자 하는 현실적 자아('백골')와 현실의 안주를 거부하고 이상을 추구하려는 이상적 자아('아름다운 혼')가 갈등을 일으킨다. '백골'은 식민지 현실 속에서 생명력이 이미 다한 자신의 현실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일 터이다.

제4연에서는 어디선가 본질을 지키라는 소리가 들린다. '어둠을 짓는 개'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무력한 생활을 하는 '나'를 일깨우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5연에서는 '나'의 안일한 자세를 일깨우는 소리가 '나'의 양심을 압박해 온다. 강박 관념을 표현한 것이다.

제6연은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부끄러운 자아를 떼어 놓고 새로운 이상의 세계로 가자는 것이다. '또 다른 고향에 가자'는 말은 시대적 상황으로 정신적 고뇌를 겪고 있는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새로운 세계(즉, 미래의 이상향)를 지향하는 것으로 읽힌다.

윤동주 시의 주요한 모티프를 이루고 있는 '그리움'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대단하다. 평화롭기만 했던 유년 시절의 추억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시는 고향에 대한 단순한 그리움만을 노래한 것은 아니다. 평화롭고 아름답기만 했던 고향을 떠나 평양, 서울, 일본을 전전하면서 암담한 현실을 깨닫고 고향에 돌아와 보니 옛날의 고향이 아님을 알게 되고 비애, 불안 심리, 강박 관념에 사로잡히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고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이 시는 그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미래엔 문학 II] 하처씨의 훈장-박완서

줄거리

너우네 아저씨는 그 형님의 아들, 즉 장조카를 거두어 키웠다. 아들 은표와는 명백하게 차이를 두어 키울 정도로 장조카에 대한 정성이 극진했으며, 그것이 그의 자랑이었다. 6·25 전쟁이 터지고 1·4 후퇴가 시작되자 마을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피란길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교과서에 제시된 부분은 피란 이후 너우네 아저씨의 생애가 서술자인 '나'의 시선을 통해 압축적으로 드러나면서 '나'가 아저씨의 속마음을 알게 되는 장면이다.

어느 고약스럽게 추운 날, 우리는 마을을 비우고 피란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름 난리에 마을엔 소 한 마리 남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고 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가다 죽느니 집에 앉아서 죽겠다고 버티는 노인이 생기면 대개의 남자들은 노인네를 돌보라고 아내를 떼어 놓고 떠났다. 자연히 젖먹이도 남게 되고, 막상 길에 나선 건 살아남은 청장년과 길을 걸을 만한 사내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우리 식구가 너우네를 지날 때 나는 아버지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❶거처적대면서 은표네 집에 들렀다 가자고 졸랐다. 아버지는 ❷가타부터 말없이 앞만 보고 걸었다. 그때였다. 지계를 진 너우네 아저씨가 집을 나서고 있었다. 지계에 진 건 피란 보따리가 아니라 성표 형이었다. 솜두루마기를 입고 솜 포대기를 뒤집어쓰고 눈만 내놓고 있어서 머리칼이 몽땅 빠졌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열 살이 넘는 소년이 지계에 탄 걸로 봐서 ❸염병의 ❹예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성표만 데리고 가시게요?”

사람들이 물었다.

“어차피 하나밖에 못 데리고 떠날 바엔 조카자식을 구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부가 있나요.”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이 건성으로 이렇게 맞장구를 쳤다. 병석에 있는 노모를 혼자 놓아두고 떠날 그가 아니었고, 아내와 형수를 남겨 두고 혼자 떠나려니 못 걷는 두 아이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 선택을 함에 고뇌나 갈등이 조금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만만하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그에게 맹렬한 적의를 느꼈다.❶

너우네 아저씨까지를 포함한 우리 일행이 동구 밖을 벗어나려고 할 때였다. 여자의 통곡 소리가 들렸다. 은표 아버지, 은표 아버지, 통곡에 간간이 이런 소리가 섞이는 걸로 봐서 은표 어머니가 통곡하는 소리였다.

그 ❷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에 우리 일행은 발길을 멈추었다. 그러나 너우네 아저씨만은 지계를 지고 잘도 걸었다. 그 후 나는 오래도록 그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잊지 못했다.

피란 내려와서도 한동안은 너우네 아저씨와 이웃해 살았다. 밤새도록 반짝반짝 닭은 크고 작은 자물쇠를 앞뒤로 주렁주렁 달고 장군처럼 거만하고 당당하게 장사를 나가는 너우네 아저씨의 권위는 완벽했다. 내 자식을 사지에 뿌리치고 조카자식을 구해 내서 공부시킨다는 게 그렇게 위대한 일일까? 나는 그의 당당함에 압도된 채, 속으로 언젠고 그의 위대성이 터무니없는 가짜라는 걸 보고 말 테다, 라는 엉큼한 생각을 키우고 있었다.

휴전이 되었지만 우린 고향에 돌아갈 수 없었다. 삼팔 이남이었기 때문에 꼭 돌아갈 수 있을 것을 믿었던 우리는 하필 우리 고향 쪽에서 남으로 처진 휴전선이 억울하고 원망스러웠다.

너우네 아저씨인들 그때 이별이 영이별 될 줄만 알았으면 설마 지계에 은표 대신 성표를 올려놓지는 않았으련만……. 형과 나는 고향을 아주 잃은 비감 때문에 이렇게 너우네 아저씨의 처사를 인간적으로 해석하려 들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너우네 아저씨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될 줄 미리 알고 장

조카를 구했노라고 으스스했다. 장조카를 공부시킬 위대한 사명을 띤 그의 행상이 조그만 점포로 발전할 무렵 우리도 생활이 좀 나아져서 탄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주 소식을 주고받았고, 만날 기회도 심심찮게 있었다.

일 년에 두 번 있는 동향인의 군민회도 우리 식구가 모두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참석하는 즐거운 모임이었지만 너무네 아저씨네도 꼭 숙질(叔姪)이 함께 참석했다. 또 실향민끼리의 의리라는 것도 각별해서 고향 땅에서는 서로 모르고 지냈던 사이끼리도 경조사를 서로 연락하고 적극적으로 참석했다.

결혼식장 같은 데서 가끔 만나는 너무네 아저씨는 성표를 대동할 적도 있었고 혼자자일 적도 있었다. 물론 앞뒤에 자물쇠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던 왕년의 행상티는 조금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 눈엔 언제나 그가 자물쇠를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제 자식을 모질게 뿌리치고 장조카를 데리고 나와 성공하게 하기 위해 온갖 고생 다했다는 걸로 자신을 빛내려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자물쇠 행상일 적에 매일 밤 그것을 닦아 훈장처럼 빛냈듯이, 요새도 매일 밤 자신의 내력을 번쩍번쩍 빛나게 닦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 특이한 내력으로 어디서나 빛났다. 동향 사람 중에서도 특히 나잇살이나 먹은 이들은 그의 자랑을 끝까지 들어 주고 아낌없이 그를 칭송하고 존경하는 걸로 자신의 도덕적인 결함까지 은폐하려 드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은표 어머니의 역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잊지 못하는 한 그의 위대성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 그가 웃음거리가 되는 걸 보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단념할 수 없었다.

동향인의 결혼식도 잦았지만, 장례식도 잦아졌다. 동향인이 모이는 자리에도 세대교체 현상이 나타나 나잇살이나 먹은 이들이 점점 줄었다. 너무네 아저씨의 자랑을 들어 주고 칭송할 사람도 그만큼 줄었다. 자신의 내력이 더는 자신을 빛내 줄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너무네 아저씨는 눈에 띄게 풀이 죽어 갔다. 나는 그런 허점을 놓칠새라 젊은 사람들한테 그가 한 짓을 풍겼다. 젊은이들의 반응은 노인들의 반응과 판이했다. 우린 이미 너무네 아저씨가 신봉하던 케케묵은 도덕과 상관없는 세대였다. 그건 한낱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게 웃음거리라면 너무네 아저씨는 더 큰 웃음거리였다. 좀 더 생각이 깊은 젊은이라면 너무네 아저씨가 자기 처자식에게 저지른 비인간적인 처사에 분개해 마지않았고, 그를 ●숫제 징그러운 괴물 취급을 하려 들었다.

그 무렵부터 성표 형이 삼촌과 동행해서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어졌고, 삼촌의 행색은 어딘지 자꾸만 초라해졌다. 성표 형이 돈 잘 번다는 소문 때문에 그의 초라함은 더욱 눈에 띄었고 악의에 찬 놀림감이 되기도 했다. 돈 잘 버는 조카한테 자가용 좀 내 달랄 것이지 왜 걸어오셨느냐는 둥, 돈 잘 버는 조카 둔 삼촌치곤 너무 ●추비한테 돈 잘 버는 조카가 싸구려 양복을 해 드렸을 리는 없고, 홀아비티가 그렇게 추비한 모양이니, 돈 잘 버는 조카한테 새 장가나 들어 달래라는 둥, 버르장머리 없는 젊은 이들이 맞대 놓고 놀려 먹었다.

그러다가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도 동향인이 모이는 자리에 발을 끊게 됐다. 아버지의 등쌀에 못 이겨 동향인의 모임에 나갔다 뿐 나의 고향은 이제 서울이었다. 내 자식의 고향이 서울이니까, 그사이에도 나도 중년으로 접어들어 아버지에 속하기보다는 자식들에 속하는 게 자연스러웠다.

“아저씨,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나는 멍청하게 치든 아저씨의 눈에 내 눈을 맞추려고 애쓰면서 이렇게 악을 썼다.

“아무도 못 알아봐요.”

아주머니가 옆에서 일러 주었다.

“말은요?”

“말을 하면 사람을 알아보게요.”

아주머니는 말은 못 해도 속으론 사람을 다 알아볼 거란 자신의 말을 이렇게 반복했다.

“언제부터 이 지경이 되셨습니까?”

“내가 돌봐 드린 지가 석 달이 넘는데 그전부터 그랬나 봐요. 나 같은 사람이 수없이 갈렸다니까…….”

“가만히 좀 계셔 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나는 노인이 입을 쭉긋대는 것 같아 이렇게 아주머니의 말을 가로막았다.

“글쎄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 한다니가요. 인기척이 나니까 먹을 걸 줄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목숨이 뭔지, 저 지경이 되기도 먹는 거라면 저렇게 ❶상성이예요. 사람 그림자만 얼씬대도 입 먼저 내두르는 걸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하고.”

“그런 줄 아시면 얼른 잡술 걸 좀 해다 드리세요.”

나는 벌떡 화를 냈다.

“아니, 이 양반이 누구한테 함부로 역정을 내고 그래요. 창자가 말라 죽지 않을 만큼은 드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도 똥에서 헤어나질 못하는데 입 내두르는 대로 퍼 넣었다간 누구 똥구덩이에 빠져 죽는 꼴 보려고 그래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아주머니는 밖으로 나가 냄비를 덜컥댔다.

“아저씨, 저 알아보시겠어요? 네, 아저씨?”

나는 아저씨의 입이 괴롭게 쭉긋대는 게 암만해도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 또다시 이렇게 악을 썼다. 입만 아니라 멍청하던 눈에도 초점과 빛이 생기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정도의 감정 표현도 힘에 겨운 듯 이불 밖으로 나온 앙상한 손이 꿈틀꿈틀 경련을 치고 있었다.

아주머니가 떨건 죽 냄비를 갖고 들어와 노인의 쭉긋대는 입에 퍼 넣으려고 했다. 그러나 뜻밖에 그는 이를 악물면서 도리질을 했다.

“예구머니, 이제 죽을 날이 정말 가까웠나 봐. ❷곡기 끊으면 죽는다는데…….”

아주머니가 경망스럽게 손갈을 내던지며 놀랐다. 그러나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다는 확신을 얻고, 그의 경련하는 손을 잡고 애타게 외쳤다.

“아저씨, 너우네 아저씨,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네, 너우네 아저씨, 뭐라고 말씀 좀 해 보세요.”

이윽고 아저씨의 손에 힘이 켜어지는 듯하더니 입놀림이 확실해졌다. 나는 그의 멍청하던 눈에 그윽한 환희가 어리는 걸 똑똑히 보았고 그의 입이 말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은표야, 아아, 은표야.”

아저씨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아저씨가 그의 아들을 뿌리치고 대신 조카를 데리고 피란 내려온 뒤 한 번도 아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걸 들은 적이 없었다. 은표의 단짝이었던 나를 보면 은표도 어느 하늘 밑에 죽지 않고 살았으면 저만할 텐데 하고 비감한 눈치라도 보일 법한데 한 번도 그런 적조차 없었다. 그는 아들을 뿌리침과 동시에 아들의 이름까지 잊어버렸을뿐더러 아예 기억에서 지우고 사는 사람 같았다. 아들 대신 장조카 데리고 피란 나왔다고 자랑할 때의 아들도 ❸보통 명사로서의 아들이지 은표라는 ❹고유 명사로서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가 처음으로 입에 올린 은표 소리는 나만 겨우 알아들을 만큼 희미했다. 그러나 내 귀엔 역장이 무너지는 소리로 들렸다. 그는 사력을 다해 역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아아, 삼십여 년 전 은표 어머니의 역장이 무너지는 소리는 이제야 앙갚음을 완수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되길 오랫동안 바라고 기다려 왔을 터인데도 쾌감보다는 허망함에 소스라쳤다.

다시 열쇠고리 장수가 늘어선 거리로 나왔을 땐 해가 뉘엿뉘엿했다. 해가 뉘엿뉘엿할 무렵이면 가슴에 하나 가득 갖가지 자물쇠를 늘인 채 봉지 쌀과 자반고등어를 사 들고 뒤통뒤통 걸어오던 너우네 아저씨의 모습이 떠올랐다. 봉지 쌀과 자반고등어 때문인지 자물쇠가 훈장으로 보이는 엉뚱한 착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외롭고 초라한 자물쇠 장수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를 ❺적시할 수 있기까지 자그마치 서른두 해가 걸렸던 것이다.❻

- “ 훈장”(1999)

[미래엔 문학 II] 상춘곡-정극인

상춘곡(賞春曲)



紅塵(홍진)에 뒹군 분네 이 내 生涯(생애) 엇더하고,
넋 사름 風流(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
天地間(천지간) 男子(남자) 몸이 날만흔 이 하건마는
山林(산림)에 뒹군 이서 至樂(지락)을 보를 것가,
數間茅屋(수간 모옥)을 碧溪水(벽계수) 얹혀 두고,
松竹(송죽) 鬱鬱裏(울울리)에 風月主人(풍월 주인) 되어서라.

세상에 묻혀 사는 분들이여. 이 나의 생활이 어떠한가.
옛 사람들의 운치 있는 생활을 내가 미칠까 못미칠까?
세상의 남자로 태어난 몸으로서 나만한 사람이 많건마는
왜 그들은 자연에 묻혀 사는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는 것인가?
몇 간쯤 되는 초가집을 맑은 시냇물 앞에 지어 놓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우거진 속에 자연의 주인이 되었구나!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桃花杏花(도화 행화)는 夕陽裏(석양리)에 띄어 있고,
綠楊芳草(녹양 방초)는 細雨中(세우 중)에 푸르도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造化神功(조화 신공)이 物物(물물)마다 현 스롭다.

엇그제 겨울이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저녁 햇빛 속에 피어 있고,
푸른 버들과 아름다운 풀은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칼로 재단해 내었는가? 붓으로 그려 내었는가?
조물주의 신비스러운 솜씨가 사물마다 야단스럽구나!

수풀에 우는 새는 春氣(춘기)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嬌態(교태)로다.
物我一體(물아 일체)어니, 興(흥)이 워 다물소냐.
柴扉(시비)에 거러 보고, 亭子(정자)애 안자 보니
逍遙吟詠(소요 음영)하야, 山日(산일)이 寂寂(적적)하네.
閑中眞味(한중 진미)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수풀에서 우는 새는 봄 기운을 끝내 이기지 못하여
소리마다 아양을 떠는 모습이로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자연과 내가 한 몸이거니 흥겨움이야 다르겠는가?
사립문 주변을 걷기도 하고 정자에 앉아 보기도 하니,
천천히 거닐며 나직이 시를 읊조려 산 속의 하루가 적적한데,
한가로운 가운데 참된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없이 혼자로구나.

이바 니웃드라 山水(산수) 구경 가자스라.
踏青(답청)이란 오늘 하고 浴沂(욕기)란 來日(내일) 하세.
아침에 採山(채산)하고 나조히 釣水(조수)하세.

여보게 이웃 사람들이여, 산수 구경을 가자꾸나.
산책은 오늘 하고 냇물에서 목욕하는 것은 내일 하세.
아침에 산나물을 캐고 저녁에 낚시질을 하세.

꽃 꺾여 너른 술을 葛巾(갈건)으로 뺏아 노코,
꽃나무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和風(화풍)이 건듯 부러 綠水(녹수)를 건너오니,
清香(청향)은 잔에 지고 落紅(낙홍)은 옷새 진다.
樽中(준중)이 뷔엿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小童(소동) 아히드려 酒家(주가)에 술을 물어
얼문은 막대 잡고 아히논 술을 메고
微吟緩步(미음 완보)하야 시냇가의 호자 안자
明沙(명사)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清流(청류)를 굽어보니 저오느니 桃花(도화)로다.
武陵(무릉)이 갓갑도다 저 띠이 낀 거이고.

이제 막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 놓고,
꽃나무 가지를 꺾어 잔 수를 세면서 먹으리라.
화창한 바람이 문득 불어서 푸른 시냇물을 건너오니,
맑은 향기는 술잔에 가득하고 붉은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
술동이 안이 비었으면 나에게 아뢰어라.
사동을 시켜서 술집에서 술을 사 가지고,
어른은 지팡이를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나직이 읊조리며 천천히 걸어 시냇가에 혼자 앉아,
고운 모래가 비치는 맑은 물에 잔을 씻어 술을 부어 들고,
맑은 시냇물을 굽어보니 떠내려오는 것이 복숭아 꽃이로다.
무릉도원이 가까이 있구나. 저 들이 바로 그곳인가?

松間(송간) 細路(세로)에 杜鵑花(두견화)를 부치 들고
峰頭(봉두)에 급피 올라 구름 소귀 안자 보니
千村萬落(천촌 만락)이 곳곳이 버러 있네.

煙霞日輝(연하 일휘)는 錦繡(금수)를 재떨는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有餘(유여)홀샤.

소나무 사이 좁은 길로 진달래꽃을 손에 들고,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수많은 촌락들이 곳곳에 벌여 있네.

안개와 놀과 빛나는 햇살은 아름다운 비단을 펼쳐 놓은 듯.
엇그제까지도 거뭇거뭇했던 들판이 이제 봄빛이 넘치는구나.

功名(공명)도 날 띄우고 富貴(부귀)도 날 띄우니,
淸風明月(청풍명월) 外(외)에 었던 벗이 잇스올고.
簞瓢陋巷(단표 누항)에 핫튼 혜음 아니 하네.
아모타 百年行樂(백년 행락)이 이만흔들 었지하리.

공명과 부귀가 모두 나를 꺼리니,
아름다운 자연 외에 어떤 벗이 있으리오.
비록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잡스러운 생각은 아니 하네.
아무튼 한평생 즐겁게 지내는 것이 이만하면 족하지 않겠는가?

세속에 묻혀 사는 사람들과, 이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고? 옛 사람의 풍류를 따를 것인가? 못 따를 것인가? 천지간의 남자 몸이 나와 같은 사람이 많건마는, 산림에 묻히어서 지극한 즐거움을 모른다는 말인가? 초가 삼간을 시냇물 앞에 두고, 소나무와 대나무 울창한 속에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구나.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저녁 햇살 속에 피어 있고, 푸른 버들과 꽃다운 풀은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칼로 오려 낸 것인가, 붓으로 그려 낸 것인가? 조물주의 신비한 공덕이 사물마다 야단스럽다. 수풀에 우는 새는 봄기운을 끝내 못 이겨 소리마다 아양떠는 모습이로다. 자연과 내가 한 몸이니 흥이 이와 다르겠는가? 사립문 앞을 이리저리 걸어도 보고 정자에 앉아도 보니, 천천히 거닐며 시를 읊조려 산 속의 하루가 적적한데, 한가한 가운데 맛보는 진정한 즐거움을 아는 사람 없이 혼자로다.

여보시오, 이웃 사람들과, 산수구경 가자꾸나. 풀 밟기는 오늘하고 목욕은 내일 하세. 아침에 나물 캐고, 저녁에는 낚시질하세. 막 익은 술을 두건으로 걸러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 따듯한 바람이 문득 불어 푸른 물을 건너오니, 맑은 향기는 잔에 지고, 떨어지는 꽃잎은 옷에 진다.



술독이 비었거든 나에게 알리어라. 어린아이에게 술집에 술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 어른은 막대 잡고 아이는 술을 메고, 나직이 시를 읊조리며 천천히 걸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 깨끗한 모래 위를 흐르는 맑은 물에 잔 씻어 (술) 부어들고 맑은 물을 굽어보니 떠내려오는 것이 복숭아꽃이로구나. 무릉도원이 가깝도다. 아마도 저 들이 그것인 것인고. 소나무 숲으로 난 가느다란 길에 진달래꽃을 붙들어 들고,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수많은 촌락들이 곳곳에 널려 있네. 아름다운 자연은 비단을 펼쳐놓은 듯, 엇그제까지만 하여도 겨울 들판이던 것이(이제 보니), 봄빛이 넘쳐흐르는 도다.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청량한 바람과 맑은 달 이외에 어떤 벗이 있겠느냐. 청빈한 선비의 살림에 헛된 생각 아니하네. 아무튼 한평생 즐겁게 지내는 일이 이만하면 어떠한가.

■요점 정리

- 지은이 : 정극인(丁克仁)
 - 연대 : 조선 성종 때
 - 갈래 : 3·4조, 4음보의 연속체 서정 가사, 양반 가사, 정격 가사
 - 성격 : 묘사적, 예찬적, 서정적, 주정적(이성이나 의지보다 감성을 중히 여기는 일)
 - 구성 : 서사 - 본사 - 결사의 3단 구성
 - 서사 -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 : 아름다운 산수 자연 속에서 청풍명월의 주인이 되어 지락을 누림
 - 본사 1 - 봄의 아름다운 경치 : 봄날의 경치에 도취됨
 - 본사 2 - 봄의 흥취 : 소요음영하며 누리는 한중진미의 생활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본사 3 - 산수 구경 권유 : 이웃들에게 함께하기를 권함

본사 4 - 술과 풍류 : 아름다운 봄 풍경을 구경하면서 한 잔의 술과 더불어 풍류를 즐김

본사 5 - 산봉우리에서의 조망(眺望) : 무릉도원을 생각하며 자연을 즐김

결사 - 안빈 낙도(安貧樂道) : 단표누향에 헛된 생각하지 않으며 안빈낙도의 생활을 즐김

시선의 이동에 따른 사상 전개되고 있는데, 곧 공간의 이동을 말하는 것으로 화자의 시선은 '수간모옥'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 점차 '들판', '시냇가', '산위'와 같은 넓은 공간으로 옮겨지면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의 이동은 화자가 속세의 세계로부터 점차 자연과 탈속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함

● 제재 : 봄의 풍경

● 표현 : 설의법, 대구법, 의인법, 직유법 등 사용

대유법 : 산림, 풍월주인, 청풍명월

대구법 : 도화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세우 중에 푸르도다 / 답청은 오늘하고 욕기는 내일하세 / 아침에 채산하고 저녁에 낙시질하세 등

의인법 :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사울고

감정이입 :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상징법 : 떠오르는 것이 도화로다. 무릉이 가깝도다

직유법 : 연하일휘는 금수를 재팠는 듯

설의법 :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사울고

● 주제 : 봄의 완상(玩賞 : 즐겨 구경함)과 안빈 낙도(安貧樂道 :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킴.), 봄의 경치를 즐기며 안빈낙도를 추구

● 특징 :

- 봄을 완상하고 인생을 즐기는 지극히 낙천적인 내용이다.

- 화자는 좁은 공간에서 점점 넓은 공간으로 나아가는 공간 확장에 의한 전개 방식 사용

- 설의법, 의인법, 직유법 등의 여러 가지 표현 기교를 사용하고 있으며, 고사를 많이 인용하여 작품 전체를 유려하게 이끌고 있다. 표기법은 창작 당대(15세기)의 것이 아니고, 후손에 의해 '불우헌집'이 간행된 18세기의 음운과 어법에 따르고 있다.

● 의의 : 조선조 사대부 가사의 효시, 강호 한정 가사의 시발이 됨

■ 내용 연구

서사 :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

紅塵(홍진)에 못친 분네 이 내生涯(생애) 었더호고.

넋 사름 風流(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

天地間(천지간) 男子(남자) 몸이 날만호 이 하건마는

山林(산림)에 못쳐 이셔 至樂(지락)을 모를 것가.

數間茅屋(수간 모옥)을 碧溪水(벽계수) 앞피 두고,

松竹(송죽) 鬱鬱裏(울울리)에 風月主人(풍월 주인) 되어서라.

(홍진은 햇빛에 비쳐 벌겋게 일어나는 티끌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뜻함)세상에 묻혀 사는 분들이여. 이 나의 생활[풍월주인으로 자연과 어울리는 일]이 어떠한가.

옛 사람들의 운치 있는 생활을 내가 미칠까 못미칠까?(자연을 벗하여 사는 화자의 풍류 생활이 옛 선인들의 풍류생활과 유사하다는 자부심이 담겨 있음)

세상의 남자로 태어난 몸으로서 나만한 사람이 많건마는

왜 그들은 자연[현실과 대립되는 공간이면서 친화의 대상이 되는 공간]에 묻혀 사는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는 것인가?

몇 칸 안되는 띠집(보잘것없는 작은 집)을 맑은 시냇물 앞에 지어 놓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우거진 속에 자연의 주인이 되었구나[화자의 심리는 자부심이 담겨 있다]! - 풍월 주인이 되어 지락을 누림 - 서사

- 홍진(紅塵) : 번거로운 세상, 속세, 하계, 사바, 인간(=인생세간)
- 생애 : 일생 동안, 생계, 여기서는 '생활'
- 미출가 못 미출가 : 미칠까 못 미칠까?
- 날만흔 이 하건마는 : 나만한 사람이 많건마는
- 모름 것가 : 모르는 것인가?
- 수간 모옥(數間茅屋) : 몇 간쯤 되는 초가집
- 울울리(鬱鬱裏)에 : 짙짙하게 우거진 속에
- 풍월 주인(풍월주인) : 자연의 주인, 소동파의 적벽부에 나오는 표현

● 紅塵(홍진)에 못친 분네 - 風月主人(풍월 주인) 되어서라. :

화자는 속세에 사는 사람들인 '홍진에 묻힌 분'과 '천지간 남자'와 대조되는 존재인 동시에 '옛 사람'과 비교되며 '풍월주인'과 등가(等價)의 존재이다. 이러한 화자가 세속을 떠나 안주하는 공간으로 정한 곳이 '수간모옥'이다. 자연 속에 묻힌 화자가 되돌아 보는 '홍진에 묻힌 분'은 세속의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고, '천지간 남자 몸'은 세속 공간을 싫어하면서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내 생애'와 다른 공간에 있는 이들의 삶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을 지니고 있기에 화자는 이들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 한다. 그러기에 화자가 찾는 위안은 '옛사람'의 풍류요, 세속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풍월주인으로 자연과 어울리는 길이 있을 뿐이다. 수간 모옥의 배경인 '벽계수'는 자연친화를, '송죽(松竹)'은 청빈한 삶을 떠받쳐 주는 매체들이다. 그러므로 '수간모옥'은 성(聖)과 속(俗)의 경계공간이다.

본사 1 : 봄의 아름다운 경치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桃花杏花(도화 행화)는 夕陽裏(석양리)에 뛰여 있고,
 綠楊芳草(녹양 방초)는 細雨中(세우 중)에 푸르도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造化神功(조화 신공)이 物物(물물)마다 현 스롭다.

엇그제 겨울이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저녁 햇빛 속에 피어 있고,
 푸른 버들과 아름다운 풀은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칼로 재단해 내었는가? 붓으로 그려 내었는가?[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찬양하는 말]
 조물주의 신비스러운 솜씨가 사물마다 야단스럽구나![야단스럽다라는 말은 경치가 다채롭고도 아름답다는 뜻]

- 석양리(夕陽裏)에 : 저녁 햇빛 속에
- 녹양 방초(綠楊芳草) : 푸른 버들과 아름다운 풀
- 세우 중(細雨中)에 : 가랑비 속에
- 몰아 낸가 : 재단해 내었는가?
- 물물(物物)마다 : 사물마다
- 현 스롭다 : 야단스럽다.

수풀에 우는 새는 春氣(춘기)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嬌態(교태)로다.
 物我一體(물아 일체)어니, 興(흥)이워 다룰소냐.
 柴扉(시비)에 거러 보고, 亭子(정자)애 안자 보니
 逍遙吟詠(소요 음영)하야, 山日(산일)이 寂寂(적적)하더.
 閑中眞味(한중 진미)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수풀에서 우는 새는 봄 기운을 끝내 이기지 못하여(못내 겨워)
 소리마다 아양을 떠는 모습이로다.[실제로 새봄을 맞은 기쁨에 들떠 있는 것
 은 화자 자신인데 이러한 화자 자신의 마음을 '새'에 감정이입하여 표현한
 것]
 사물(자연 / 구체적으로는 '새')과 내가 한 몸이거니 흥겨움이야 다르겠는가?
 [자연과 화자가 혼연일체가 되었으니 '새'나 '자신'이 느끼는 흥이 다를 리 없
 다는 뜻]
 사립문 주변을 걷기도 하고 정자에 앉아 보기도 하니, [대구법]
 천천히 거닐며 나직이 시를 읊조려 산 속의 하루가 적적(고요)한데,
 한가로운 가운데 참된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없이 혼자로구나.- 춘경에의 물
 입

- 못내 계워 : 끝내 이기지 못하여
- 물아 일체(物我一體) : 자연과 자신이 하나가 됨
- 시비(柴扉) : 사립문
- 소요 음영(逍遙吟詠) : 천천히 거닐며 나직이 읊조림
- 산일 : 산 속의 하루
- 한중 진미(閑中眞味) : 한가한 가운데 느끼는 참된 맛
- 호재로다 : 혼자로구나

● 엇그제 겨을 - 소리마다 嬌態(교태)로다. : 눈부신 아침 햇살 속
 에 밝게 전개되는 춘경이 아니라 밝음과 어둠의 경계인 석양에, 그리고 밝음
 을 차단하며 하강하는 가는 비 중에 더욱 아름답고 푸르게 보인다. 이처럼 명
 암을 공유하고 있는 조물주의 위대한 창조물인 춘경은 수풀에 우는 새를 통하
 여 그 양면성이 더욱 극명해진다. 겨울과 여름과 시간적 경계인 새봄과 연관
 되는 이 새는 땅과 하늘의 매개항으로서, 인가 근처에 서식하며 지상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어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 공간을 들락거리는 화자 자신의 감정이 이입된 객관적
 상관물이다.

● 物我一體(물아 일체)어니 - 업시 호재로다 : 춘경에 몰입했던
 내면 세계는 사립문을 거닐다가 외부 공간인 정자로 향한다. 그리고 산 속의
 하루는 소요(逍遙) 음영(吟詠)하고 한중(閑中)진미(眞味)가 있는 것이지만 그
 것은 적적하고 혼자인 고독한 공간이다. 화자는 보다 더 광활한 외부 세계로의
 탈출을 시도하게 된다.

● 이 글에 사용된 감각적 이미지는? 시각 - 청각

이바 니웃드라 山水(산수) 구경 가자스라.
 踏青(답청)으란 오늘 하고 浴沂(욕기)란 來日(내일) 하세.
 아춤에 採山(채산)하고 나조히 釣水(조수)하세.

여보게 이웃 사람들이여[돈호법], 산수 구경을 가자꾸나[자연과 혼연일체가 되는
 행위로 작품의 공간이 확대되는 계기가 됨].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봄에 파릇하게 난 풀을 밟고 노는 민속놀이인) 들놀이는 오늘 하고 냇물에서 목욕하는 것(물놀이)은 내일 하세.[대구법]
아침에는 산나물을 캐고 저녁에는 낚시질을 하세[채산과 조수는 안분지족의 삶을 상징하는 대구법]. - 산수 구경 권유

- 니웃드라 : 이웃 사람들이여
- 답청(踏靑) : 봄에 파란 풀을 밟고 노는 것
- 욱기(浴沂) : 기수에서 목욕함(공자의 제자 증점의 말에서 유래)
- 채산(採山) : 산나물을 캐. '採山菜'의 준말
- 나조헝 : 저녁에
- 조수(釣水) : 낚시질. '釣水魚'의 준말

● 이바 니웃드라 - 釣水(조수)해설 : '산수 구경'은 외부 세계로의 탈출을 위한 행위이고, 결국 자연 친화이다. '답청(踏靑)'과 '욕기(浴沂 : 명리를 잊고 유유자적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는 정치적 야심을 버리자는 다짐이고, '채산'과 '조수'는 부귀(富貴) 공명(功名)을 탐하지 말자는 의지의 표출이다.

● 답청 : 음력 3월 3일을 삼월 삼짇날이라고 한다. 옛말에 '삼짇'이라고도 하며, 한자로는 상사(上巳)·원 사(元巳)·중삼(重三)·상제(上除)·답청절(踏靑節)이라고도 쓴다. 삼짇날은 삼(三)의 양(陽)이 겹친다는 의미이다. 최남선에 의하면 삼짇은 삼일의 자음(字音)에서 변질되어 파생된 것이며, 상사는 삼월의 첫 뱀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꽃 꺾여 닉은 술을 葛巾(갈건)으로 뺏타 노코,
꽃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和風(화풍)이 건듯 부러 綠水(녹수)를 건너오니,
清香(청향)은 잔에 지고 落紅(낙홍)은 옷새 진다.
樽中(준중)이 뷔엿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小童(소동) 아히드려 酒家(주가)에 술을 물어
얼문은 막대 집고 아히논 술을 메고
微吟緩步(미음 완보)하야 시냇가의 호자 안자
明沙(명사)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淸流(청류)를 굽어보니 찌오느니 桃花(도화)로다.
武陵(무릉)이 갓잡도다 저 락이 권 거이고.

이제 막 익은 술을 첩으로 만든 두건으로 걸러 놓고['갈건녹주'를 인용한 말로 중국 췌(진)나라 때 도연명이 갈건으로 술을 걸러 마셨다는 데서 유래],
꽃나무 가지를 꺾어 잔 수를 세면서 먹으리라[정철의 '장진주사'와 유사한 표현].

화창한 바람이 문득 불어서 푸른 시냇물을 건너오니,
맑은 향기는 술잔에 가득하고 붉은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
술동이 안이 비었으면 나에게 아뢰어라.
사동을 시켜서 술집에서 술을 사 가지고,
어른은 지팡이를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나직이 읊조리며 천천히 걸어 시냇가에 혼자 앉아,
고운 모래가 비치는 맑은 물에 잔을 씻어 술을 부어 들고,
맑은 시냇물을 굽어보니 떠내려오는 것이 복숭아 꽃이로다.
무릉도원이 가까이 있구나. 저 들이 바로 그곳인가? - 음주 취흥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괴여 : 발효하여
- 갈건(葛巾) : 칩으로 만든 두건
 - 수 노코 : 수효를 계산하고, 산가지 놓고
 - 건돏 : 문득, 잠깐
 - 지고 : 떨어지고
 - 준중(樽中) : 술동이 안
 - 미음 완보(微吟緩步) : 나직이 읊조리며 천천히 걸음
 - 명사(明沙) : 곱고 깨끗한 모래
 - 조훈 : 깨끗한
 - 시어 : 씻어
 - 청류(清流) : 맑은 시냇물
 - 무릉(武陵) : '武陵桃源'의 준말 곧 이상향(理想鄕)을 말함
 - 락 : 들

● 𦵓 괴여 - 옷새 진다 : 술을 갈건으로 걸러 취하도록 마시겠다는 것은 속세의 흥진을 미련 없이 털어 버리고 도연명의 '갈건녹주'하는 행락을 본받겠다는 다짐이다. 술은 도연명이나, 이백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대부가 현실을 벗어나 이상향을 찾을 수 있는 도구로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상당히 낭만적이고, 풍류적인 모습이다.

● 樽中(준중)이 뷔엿거든 - 저 락이 권 거이고. : 도연명처럼 시냇가로 가서 술을 마시며 맑은 시냇물을 곱어 보니, 떠오르는 것이 도화꽃이로다 하면서 도화꽃을 통해 이상향인 무릉도원(武陵桃源)에서의 삶을 희구하고 있다.

● 얼운 : '어른'의 옛말로 기본형 '얼우다'에서 파생됨

松間(송간) 細路(세로)에 杜鵑花(두견화)를 부치 들고
峰頭(봉두)에 급피 올라 구름 소귀 안자 보니
千村萬落(천촌 만락)이 곳곳이 버러 잇네.

煙霞日輝(연하 일휘)는 錦繡(금수)를 재펴는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有餘(유여)홀샤.

소나무 사이 좁은 길로 진달래꽃을 손에 들고[붙들고],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자신을 신선이라 여기는 풍류가 담겨 있음],
수많은 촌락들이 곳곳에 벌여 있네.
안개와 놀과 빛나는 햇살은 아름다운 비단을 펼쳐 놓은 듯[산 아래 촌락들이 안개와 노을과 햇살 아래서 비단을 펼쳐 놓은 듯].
엇그제까지도 거뭇거뭇했던(검던) 들판이 이제 봄빛이 넘치는구나. - 선경 -
본사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세로(細路) : 좁은 길
- 부치 들고 : 붙들어 잡고
- 봉두(峰頭) : 산봉우리
- 천촌만락(千村萬落) : 수많은 촌락
- 연하일휘(煙霞日輝) : 안개와 놀과 빛나는 햇살
- 금수(錦繡) : 수놓은 비단
- 재펄튼 듯 : 펼쳐 놓은 듯
- 유여(有餘)홀샤 : 넘치는구나

● 松間(송간) 細路(세로)에 - 봄빛도 有餘(유여)홀샤 : 봉두에 급히 오르는 행위는 화자가 한 곳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적극적인 상승 운동이다. 그리고 구름 속에 앉아 물론 그 행위는 신선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속세를 바라보니 비단을 펼친 듯, 봄빛이 흘러 넘친다라고 한 것은 화자가 그 동안 겪었던 갈등을 극복했다는 의미이다.

功名(공명)도 날 썬우고 富貴(부귀)도 날 썬우니,
淸風明月(청풍명월) 外(외)에 었던 벗이 잇스올고,
簞瓢陋巷(단표 누항)에 훗튼 혜음 아니 흐넬,
아모타 百年行樂(백년 행락)이 이만흔 둘 었지흐리.

공명과 부귀가 모두 나를 썬리니,

아름다운 자연 외에 어떤 벗이 있으리오.

소박한 생활과 누추한 거리에서[단표 누항(簞瓢陋巷 : 좁고 지저분한 거리인 누항에서 먹는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이라는 뜻으로, 논어의 옹야편에 나오는 말로 소박하고 청빈한 생활을 이르는 말)로 도시락 밥과 표주박 물을 먹고 누추한 곳에 살면서 비록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잡스러운 생각(부귀와 공명과 같은 욕심이 담긴 생각)은 아니 하네.

아무튼 한평생 즐겁게 지내는 것이 이만하면 족하지 않겠는가?(안빈낙도의 경지에 이르고 있는 화자를 나타냄)[삼국시대 초기부터 유교 문화가 우리사회에 점차 폭넓게 받아들여지면서, 유교적 인격체인 선비의 덕성에 관한 이해가 정립되기 시작하였고, 조선조에 유교 이념이 통치 원리가 된 이후, 선비 정신은 곧 유교 이념을 구현하는 것으로 의식되었다. 선비는 부귀의 세속적 가치를 따르지 않고 인의의 이념을 신봉하였으며, 선비의 현실적 삶이란 "한 시대에 나가서 도를 시행하고 (行道一世), 말씀을 내려 주어 후세에 가르침을 베푸는 일(立言垂後)"의 두 가지를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 안빈낙도 - 결사

- 썬우고 : 꺼리고
- 청풍명월(淸風明月) :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소동파의 '적벽부'에 나오는 구절로, 자연을 뜻함.
- 단표 누항(簞瓢陋巷) : 간소한 음식과 누추한 거처
- 훗튼 : 흩어진, 번잡한
- 혜음 : 생각
- 아모타 : 아무튼
- 백년 행락(百年行樂) : 평생을 즐겁게 지내는 일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아모타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엇지하리 : **향가의 형식적 특성과 시조 종장의 영향이 남은 흔적과 더불어 안분지족(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앎)의 자세가 담겨 있음**
- 훗튼 혜음 : **공명과 부귀**

● **功名(공명)도 날 띄우고 - 이만한들 엇지하리** : 공명과 부귀가 나를 꺼린다는 표현은 주체와 객체를 전도시킨 표현으로 사실은 화자 자신이 부귀와 공명을 꺼린다는 말이다. **이제 부귀공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진 화자는 비록 '단표누항(簞瓢陋巷)'의 빈한한 처지이지만, 속세에 대한 미련을 떨치고 자연(自然)귀의(歸依)와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또한 다른 작품들, 즉 송순의 '면앙정가'나 정철의 '관동별곡' 등에는 상투적인 군은(君恩)에 대한 예찬의 정서가 드러나 있는데 '상춘곡'에는 그러한 정서가 없다.**

- **작자가 자연을 바라보는 입장** : 자연을 예찬하는 강호가도(江湖歌道)의 입장을 보인다. 자연미(봄 경치)의 발견과 예찬, 물아일체의 경지에 이르러 취흥에 빠진 채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모습을 통해 자연 속의 삶을 무릉도원(武陵桃源)으로 여기는 작자의 입장을 여실히 보여 준다.
- **작품에 드러난 작자의 세계관 / 화자가 추구하는 세계관** :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자연과 동화된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안분지족(安分知足)하는 이상적인 삶을 드러내고 있다. 즉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생활 철학을 드러내는 것이다.
- **시선의 이동** : '상춘곡'의 화자는 좁은 공간인 '수간 모옥'에서 점차 '들판', '시냇물', '산 위'와 같이 넓은 공간으로 옮겨지면서 확대되고 있다.
-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이러한 삶의 태도는 어떤 의의가 있는지 함께 토론해 보자.**

이끌어주기 : 물질문명이 발달하고 배금주의가 만연한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상춘곡에 드러난 작자의 태도가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예시답안]

산업 시대의 개막 이래 여러 세대들은, 자연을 지배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오며 최대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 주고 개인적인 자유가 보장되리라는 약속을 굳게 믿어 왔다. 그러나 산업시대는 결국 이 약속들을 이행하는데 실패하였고, 점점 많은 사람들은 모든 욕망의 무한정한 충족은 안녕을 가져다 주지 않으며 그것은 또한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끌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사유재산, 이윤, 힘을 지주(支柱)로 삼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리하여 취득하는 것, 소유하는 것, 이윤을 남기는 것을 산업사회에서 살고있는 개인의 신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재산을 획득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데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처럼 생존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 양식을 가장 당연한 생존 양식으로, 심지어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생활양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인류는 오랫동안 "가난"을 추구하는 윤리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가난이 도덕적인 이상이 되면 그에 상응하여 화폐의 취득은 가장 위험한 유혹, 진정한 악(惡)으로서 혐오의 대상이 된다. 영혼의 구원이 최종목표로 간주될 때, 많은 교리에서는 가난이 긍정적이며 필수적인 수단으로 해석되고 때로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타당한 가치로서의 권위를 가지게 된다.

우리의 고전 시가에는 안빈낙도의 이념을 노래하는 것이 많이 있다. 이러한 안빈낙도의 의식은 물질에 대한 욕구를 버림으로써 얻매이지 않을 수 있고,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얻어 마침내 편안해질 수 있다는 생각과 관련된다. 이처럼 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자유야말로 인간의 인간다움에 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해 준다. 따라서 오늘날의 우리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세심하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출처 : 한계전 외 5인 공저, 블랙박스 문학)

- **자연적 삶을 주제로 한 시가 작품들**
안빈낙도 자연 친화의 계보

滿開(만피)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정극인의 "상춘곡"→ 송순의 "면앙정가"→ 정철의 "성산별곡"

이현보의 "어부가"→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

●한국시가와 풍류

안빈낙도 - 안빈낙도(安貧樂道)

안빈낙도(安貧樂道)란, 소극적으로는 수신지분(修身持分)하는 경지요, 적극적으로는 자기의 긍지(矜持)속에서 도(道)를 즐기는 경지를 뜻한다. 이 가치관(價値觀)은 같은 유학적(儒學的) 관점이라도 실학적(實學的)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관점에서 보면 소극적 인생관이 되고, 도문적(道文的) 유학관(儒學觀)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구도자(求道者)의 적극적인 낙도관(樂道觀)이 된다. - 김흥규, '강호 자연과 정치 현실'

■이해와 감상

전 79로 된 가사로, 지은이가 벼슬을 사임하고, 향리인 전라도 태인으로 돌아가 만년을 지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풍류와 안빈낙도의 정신을 노래한 작품이다. 서사·본사·결사의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서사에서는 시냇가에 집을 짓고 자연의 주인이 된 즐거움을, 본사에서는 봄을 맞이하여 자연 속에서 체험한 물아일체의 경지와 풍류적인 생활을 그렸으며, 결사에서는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으로 토로하였다.

내용 전개에 있어서 풍월주인, 가려춘경, 소요음영, 산수구경, 음주자적, 등고부감, 수분행락과 같은 장면 배합이 잘 되어 한결 상춘의 흥취를 고양시켜 준다. 조사법이 자연스럽고 표현 기교 또한 아려(雅麗)해서 양반가사 중 일품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이 가사는 그간 사적 고찰은 물론 작가 연구, 내용 및 형식분석, 문체 연구 등 다방면에 걸쳐 활발히 연구,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이 가사는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학계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우선 이 가사의 사적 위치의 문제이고, 다음은 이 가사의 작자의 문제이다.

전자는 이 가사가 종전의 학설대로 가사문학의 효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 그것은 최초의 작품으로서 그 형식이 너무 정제되어 있다는 점과 또 어사가 15세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다. 때문에 이병기·정병욱 등은 고려 말 나옹화상의 작으로 알려진 '서왕가'를 그 효시로 추정하기도 한다. 다음 작자에 대하여는 임진왜란 전후의 문헌적 방증이 없고, 구사된 시어들이 정극인의 다른 시문에서는 찾아 볼 수 없고, '상춘곡'의 사상과 정극인의 사상과는 일치하지 않고 정극인은 '상춘곡'을 창작할만한 능력이 없으며, 언어적 표현도 조선 초기의 것이 아니고, 음보나 음수율, 또는 감정 표현의 기교도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정극인의 작자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신중론을 펴는 견해와 종전의 설을 그대로 고수하려는 견해도 있다. 전자는 문헌상으로나 자료면에서 정극인 작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 한 아직 그 작자나 제작연대에 대해서 숙단을 내리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라고 하고,

후자의 경우는 '상춘곡'의 내용은 '불우헌집'의 행장과 시문에 부합되고, 제작 당시 1470년(성종1) 즉, 작자 70세 치사환향 때의 귀거래사적 심정과 그의 사의가 어울리며, '불우헌집'의 사료적 신빙성도 충분하다고 하여 종래 정극인의 제작설을 재확인하고 있다. 한편 상례와 같은 의문을 제기하는 편에서도 3·4조 우세의 음수율과 '불우헌집'체제의 신빙성, 기·서 및 그밖의 시문과의 다소의 조응성 등 몇 가지를 들어 정극인의 작자설을 전연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상례의 의문은 하나의 문제 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우법을 사용한 구성의 묘라든지 자연탄미의 선명한 주제, 유연한 율조와 우아한 풍류미는 후세의 가사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높이 평가되는 작품이다. 하여간 '상춘곡'은 설의법, 의인법, 대구법, 직유법 등의 표현 기교와 고사를 적절히 활용하여 은일지사(隱逸之士)의 유유자적한 생활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이 작품은 송순의 '면앙정가'에 영향을 주었고, 그것이 다시 송강 정철의 '성산별곡', '관동별곡'으로 이어져 강호 한정 가사의 맥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래엔 문학 II] 모닥불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어두운 ❶청과 시장 귀퉁이에서
지하도 공사장 입구에서
잡것들이 몸 뚫 세상 쓰레기장에서
철야 농성한 여공들 가슴속에서
첫차를 기다리는 면사무소 앞에서
가난한 양말에 구멍 난 아이 앞에서
비탈진 역사의 텃밭 가에서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 있는 곳에서
모여 있는 곳에서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얼음장이 강물 위에 놓는 ❷선달에
낮도 밤도 아닌 푸른 새벽에
동트기 십 분 전에
쌀밥에 더운 국 말아 먹기 전에
무장 독립군들 출정가 부르기 전에
압록강 건너기 전에
배부른 그들 잠들어 있는 시간에
쓸데없는 책들이 다 쌓인 다음에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언 땅바닥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흑흑 입김을 하늘에 불어넣는
죽음도 그리하여 삶으로 돌이키는
삶을 희망으로 전진시키는
그날까지 끝까지 울음을 참아 내는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한 그루 향나무 같다

- “ ”(1989)

■요점 정리

- 지은이 : 안도현
- 갈래 : 서정시
- 성격 : 상징적, 비유적, 나열적
- 소재 : 모닥불
- 주제 : 어두운 삶에 대한 위로와 희망적 삶에 대한 기대
- 구조

부 정 적 이 미 지	어려운 삶이 드러난 곳 어두운 청과 시장 지하도 공사장 쓰레기장 철야농성한 여공들의 가슴 양말에 구멍난 가난한 아이 앞		절박한 삶이 드러나는 순간 얼음장이 녹는 추운 선달 푸른 새벽 동트기 십 분 전 독립군이 출정가 부르기 전 독립군이 압록강 건너기 전
		비탈진 역사의 텃밭	
긍정적 이미지= 이러한 장소와 시간에 피어오르는 모닥불 = 삶을 희망으로 전환시키는 존재			

- 특징 : 동일한 시행을 반복함으로써 화자가 전달하려는 의미를 강조하고, 일상적 삶의 모습들을 제시하여 시적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했고, 특정 음절들을 일정한 곳에 배치시켜서 규칙적인 리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고, 화자의 정서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장소'와 '시간'의 나열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여줌

■내용 연구

모닥불[삶의 희망을 주는 존재]은 피어오른다

어두운 청과시장 귀퉁이에서

지하도 공사장 입구에서

잡것들이 몸 뚫은 세상 쓰레기장에서

철야 농성한 여공들 가슴속에서

첫차를 기다리는 면사무소 앞에서

가난한 양말에 구멍난 아이 앞에서[어렵고 힘든 삶을 압축적으로 제시]

비탈진 역사의 텃밭 가에서(풍요롭거나 화려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과 역사)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 있는 곳에서[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만, 심성만은 그렇지 않음을 드러낸 말]

모여 있는 곳에서

모닥불은 피어오른다(가난하지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장소로 제시)

얼음장이 강물 위에 녹는 선달에

낮도 밤도 아닌 푸른 새벽에

동트기 십 분 전에

쌀밥에 더운 국 말아먹기 전에

무장 독립군들 출정가 부르기 전에

압록강 건너기 전에 (좁고 어두우며 절박한 삶의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시간으로 제시)

배부른 그들 잠들어 있는 시간에[물질적 측면]

쓸데없는 책[정신적 측면]들이 다 쌓인 다음에 (각성하게 만드는 부정적 상황 - 긍정적이지 못한 삶의 모습)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언 땅바닥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흑흑 입김을 하늘에 불어넣는

죽음도 그리하여 삶으로 돌이키는(삶의 희망과 생명력)

삶을 희망으로 전진시키는

그 날까지 끝까지 울음을 참아내는

모닥불은 피어오른다[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화자가 전달하려는 의미를 강조함]

한 그루 향나무같다(모닥불과 향나무는 새로운 희망을 의미, 현실의 삶에 변화를 주는 모닥불의 모습)

■이해와 감상

화자의 감정 표현을 배제한 채, 장소와 시간을 나열하고 그 가운데 모닥불이 피어오르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시적 화자는 시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사람들의 고단한 삶과 역사적 암흑기 등을 열거하면서 그 어둠과 시련 속에서도 모닥불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게 불빛을 비추어 주고 있다. 모닥불은 스스로를 태우면서 어둠을 밝히는 존재이다. 모닥불처럼 자신을 불태우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시련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보내고 있는 시이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미래엔 문학 II]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영희의 이야기를 나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영희는 독일 하스트로 호수 근처에 있다는 릴리푸트 읍 이야기를 했다. 자세히 듣지 않아도 슬픈 이야기였다. 돌아간 아버지를 생각 하면 언제나 눈물이 나려고 했다. 릴리푸트 읍은 국제 난쟁이 마을이다. 여러 나라의 난쟁이들이 그곳에 모여 살고 있다. 키가 칠십팔 센티미터로 세계에서 제일 작은 사나이인 터키 인 난쟁이도 최근에 그곳으로 이주했다. 릴리푸트 읍의 난쟁이 인구는 늘어만 간다. 릴리푸트 읍을 제외한 곳은 난쟁이들이 살기에 모든 것의 규모가 너무 커서 불편하고 또 위험하다.

난쟁이들에게 릴리푸트 읍처럼 안전한 곳은 없다. 집과 가구는 물론이고, 일상 생활용품의 크기가 난쟁이들에게 맞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곳에는 난쟁이의 생활을 위협하는 어떤 종류의 억압, 공포, 불공평, 폭력도 없다. 권력을 추종자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고 무서운 법을 만드는 사람도 없다. 릴리푸트 읍에는 ●전제자가 없다. 큰 기업도 없고, 공장도 없고, 경영자도 없다. 여러 나라에서 모인 난쟁이들은 세계를 자기들에게 맞도록 축소시켰다. 그들은 투표를 했다. 그들은 국적 따위는 무시했다. 모두 열심히 투표에 참가하여 마리안느 사르를 읍장으로 뽑았다. 여자 읍장의 키는 일 미터이다. 독자적인 마을을 열망한 작은 힘들이 난쟁이 마을을 세웠다. 영희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곳 난쟁이들은 혁명가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제 자녀들의 출산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는다.

거인들이 사는 곳에서는 너무 불행했었다.

지금 릴리푸트 읍의 난쟁이들은 자기들의 특수 의료 문제, 사회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재정 문제 등을 토의하고 있다.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는 극히 행복하다.”라고 마리안느 사르 읍장은 말했다.

‘행복’이라고 영희는 썼다. 영희는 돌아간 아버지를 생각했다. 나는 영희의 눈에 눈물이 끼는 것을 보았다. 릴리푸트 읍 같은 곳에서 아버지는 살았어야 했다. 아무도 “난쟁이가 간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스트로 호수 근처에 살았다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타살당한 아버지’라는 말을 영희가 했었다. 나는 영희의 말을 막을 수 없었다. 깊고 캄캄한 벽돌 공장 굴뚝 안을 생각하면 숨이 막혔다. 아버지의 몸은 작았지만, 아버지의 고통은 컸었다. 아버지의 키는 백십칠 센티미터, 몸무게는 삼십이 킬로그램이었다. 은강 생활 초기에 나는 아버지의 꿈을 자주 꾸었다. 아버지의 키는 오십 센티미터밖에 안 되어 보였다. 작은 아버지가 아주 큰 수저를 끌어가고 있었다. 푸른 녹이 낀 낫수저를 아버지는 끌고 갔다. 머리 위에서는 해가 불별을 내렸다. 아버지에게 그 낫수저는 너무 무거웠다. 그래서 불별 속에서 땀을 흘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지친 아버지는 키보다 큰 수저를 놓고 쉬었다. 쉬다가 그 수저 안으로 들어가 누웠다. 아버지는 불별을 받아 뜨거워진 낫수저 안에 누워 잠을 잤다. 나는 수저 끝을 들어 아버지를 흔들었다. 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았다. 아버지의 몸은 낫수저 안에서 오프라돌었다. 나는 울면서 아버지의 낫수저를 잡아 흔들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걱정할 것 없다.”

어머니는 나의 머리숱에 손가락을 넣었다.

“가장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면 꿈을 꾸지 않을 거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네 책임이 무거워졌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전 한 번도 가장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말했다.

“아니다.”

어머니가 말했다.

“너도 모르는 일이다. 네 마음속 어디에 그런 생각이 들어 있는 거야.”

어머니의 말대로 나의 마음속 어느 구석에 그런 생각이 들어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말했었다.

“애야, 너는 장남이다.”

아버지는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집안의 기둥이다.”

“영수야.”

어머니는 말했다.

“나도 아직 일을 할 수 있고, 영호와 영희도 자랄 만큼 자랐다.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우리는 너를 믿고 따라갈 거야.”

은강은 릴리푸트 읍과는 전혀 다른 도시였다. 영희는 그것을 가슴 아파했다. 모든 생명체가 고통을 받는 땅이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은강에 왔다. 아버지가 돌아가고, 얼마 동안 정지했던 생명 활동을 우리는 은강에서 다시 시작했다. 나는 생명처럼 추상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는 했다. 그것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것이었다. 중학교 때의 생물 책 용어를 빌려 쓴다면 아버지는 자기와 똑같은 것을 복제하여 종족을 늘려 놓고 돌아갔다. 어머니에 의하면 아버지는 생명의 다른 모임터로 돌아갔다. 아버지의 몸은 화장터에서 반 줌의 재로 분해되었다. 그 반 줌의 재를 받아 들고도 어머니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누구나 죽으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우리는 반 줌의 재를 흐르는 물 위에 뿌려 넣었다. 영호와 나는 눈물을 주먹으로 씻어 내리며 울었다.●

“숙제 다했니?”

아버지가 물었었다.

“아뇨.”

나는 자를 대고 끝이 뾰족한 삼각형을 그렸다.

“숙제를 해.”

“이게 숙제야요.”

아버지는 내가 그린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먹이 피라미드야요.”

내가 말했다.

“그 효용이 뭐냐?”

“생태계를 설명하는 그림야요.”

“설명을 해 봐라.”

“이 맨 밑이 녹색 식물로 일 단계야요. 이 식물들을 먹는 동물이 이 단계이고, 식물을 먹는 동물을 잡아먹는 작은 육식 동물이 삼 단계, 또 이것을 잡아먹는 큰 육식 동물이 맨 위의 사 단계야요.”

“영호야.”

아버지는 말했다.

“너도 형처럼 설명할 수 있겠니?”

“못 해요.”

영호가 말했었다.

“형처럼은 못 해요. 그래도 전 알아요. 우리는 이 맨 밑야요. 우리에겐 잡아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위에는 우리를 잡으려는 무엇이 세 층이나 있어요.”

“아버지도 쉬셔야지!”

어머니가 말했다.

“그동안 힘든 일을 너무 많이 하셨어. 이제는 편히 쉬실 수 있을 게다.”

“쉬셔야 할 분은 어머니예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반 줌의 재를 썼던 흰 종이를 물 위에 띄웠다. 우리는 물가

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없어졌다. 바람이 불었다. 햇볕이 따듯했다. 몇 마리의 새가 어머니 옆에서 날았다.

- “ 쏘아 올린 작은 공”(1978)

◆ 요점 정리

●지은이 : 조세희

●갈래 : 현대 소설, 액자 소설, 연작 소설

●성격 : 상징적, 우화적, 사회 비판적, 사회 고발적

●문체 : '스타카도(staccato)'식 문체로 짧은 문장이 운문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많은 동작과,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가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서술자는 자신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그의 절제는 접속사와 수식어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그의 절제는 접속사와 수식어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체언과 용언으로만 구성하며, 중문 또는 복문 구조를 피하며 단문으로 일관하고, 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거세시켜 객관 묘사법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데서 극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 스타카도 문체가 주는 효과는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사이의 순수한 공백이 독자의 인상과 감동을 촉발한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사건의 비극성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

●배경 : 철거 위기에 놓인 도시 빈민들이 살아가는 1970년대의 어느 도시 재개발 지역

●구성 : 액자 구성(큰 이야기 속에 들어 있는 구성)으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넘나드는 구성과 우화적기법

외화 - 우화(寓話)로 고정관념에 대한 문제제기, 우화의 의미 - 타인과의 관계를 벗어난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화 - 빈민층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일화 적용, 소설의 주제는 매우 사실주의적인데 반해 수법은 반사실적, 서정적임

외화 - 주제의식 정리(의미 구체화)

발단 : 수학 교사의 우화를 통한 질문과 뫼비우스의 띠라는 수학적 개념 제시

전개 : 생활이 어려운 앓은뱅이와 끔추는 아파트 재개발로 살고 있는 집을 헐값에 빼앗기게 되자 복수를 결심하고 준비한다.

위기 : 저녁이 되어 돌아가는 부동산업자의 길을 막고 요구를 말하자, 부동산업자는 거짓말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다.

절정 : 끔추와 앓은뱅이는 부동산업자를 묶고 돈을 빼앗은 그들은 부동산업자를 차에 태워 불을 질러 잔인하게 살해한다. 받은 돈으로 강냉이 기계를 사서 생활하려하지만, 끔추는 약장수를 따라 떠난다.

결말 : 수학 교사는 '뫼비우스의 띠'가 담고 있는 의미와 지식의 이기주의적 폭력화를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교실을 떠난다.

●시점 : 연작 작품에 따라 시점이 변함

외화 : 작가 관찰자 시점(수학 교사의 이야기로, 외부 이야기를 통해 작품의 주제와 의도를 암시하고 있다)

내화 : 전지적 작가 시점(끔추와 앓은뱅이가 부동산업자에게 자신들의 정당한 대가를 되찾아옴)

●주제 : 사실의 양면성.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그가 속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안과 겉, 선과 악, 정의와 불의로 양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 작품은 연작 소설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중의 한 편으로, 1970년대 말 가속화된 산업화의 희생자인 도시 빈민층의 삶을 배경으로 하여 현대인의 삶의 문제를 비판, 사물에 대한 고정 관념 경고, 철거민들이 겪는 좌절과 고통, 도시 빈민 계층의 참혹한 삶과 의지, 빈민층과 부도덕한 부자들과의 대립들을 그림, 산업화 사회에서 인간의 가치가 소외되는 사회 현실 - 1970년대 '낙원구 행복동'에 사는 난쟁이 가족의 삶을 통해, 도시 재개발에 가려진 소외 계층의 아픔을 그리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 : 주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시점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고, 과거와 현재 시간을 중첩시키면서 사건을 전개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통해 서정적인 감정을 자아내고, 우화(인격화한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이야기)를 인용하여 의도하는 바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문제 제기와 해답 추구의 과정을 거쳐 삶의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 - 액자식 구

滿開(만피)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성, 짧고 간결한 문체, 대화와 행동에 의한 사건 전개, 상징적 이미지를 적절히 활용함.

●의의 : 산업화로 인한 사회 구조의 모순과 병폐를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아울러 선과 악, 정의와 불의에 대한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시각을 갖도록 한다.

●인물 :

수학 교사 : 진보적이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로 학생들에게 흑백논리, 고정 관념을 벗어난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한다.

앓은뱅이 : 어렵게 살아가다 사기를 당한 억울한 인물.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으로 부동산 업자를 살해한다.

꼭추 : 앓은뱅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인물이지만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며 살아간다. 부동산업자를 살해하는 일에 동참하지만 곧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앓은뱅이를 떠나서 약장수를 따라 나설 결심을 함.

●개관 : 이 작품은 연작 소설 12편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낙원이나 행복과는 거리가 먼 소외 계층을 대표하는 난쟁이 일가의 삶을 통해, 도시 재개발 뒤에 숨은 빈민층의 아픔을 그리고 있다. 작자는 가난한 소외 계층과 공장 노동자들의 삶의 모습을 파헤침으로써, 1970년대 가장 핵심적인 사회 문제였던 노동 현실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작자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품 속의 수학 교사가 학생들에게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형성시키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난쟁이' 연작의 문학사적 의의 : 1970년대 한국 사회의 모순을 정면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작품 속에 나타난 많은 대립 관계들은 70년대가 이러한 관계들의 화해를 가능하게 할 만큼의 성숙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작품들은 환상적인 기법을 소설에 도입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화해 불가능성이 비논리의 세계나 동화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냉혹한 현실이 강조되고 있으며, 12편으로 이루어진 연작 형식을 통해 단편과 장편으로 담지 못했던 1970년대의 시대적 상황을 적절하게 그릴 수 있었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구성

- (1) [뫼비우스의 띠](#)
- (2) [칼날](#)
- (3) [우주 여행](#)
- (4)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 (5) [육교 위에서](#)
- (6) [궤도 회전](#)
- (7) [기계 도시](#)
- (8)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
- (9)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 (10) [클라인씨의 병](#)
- (11)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 (12) [에필로그](#)

●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줄거리

(1) [뫼비우스의 띠](#)

외화에 수학 교사가 교실에 들어 와서 굴뚝 청소를 하는 두 아이와 뫼비우스의 띠 이야기를 하고, 내화에 혈값에 아파트 입주권을 팔아 버리고 살인을 하게 되는 앓은뱅이와 꼭추 이야기가 섞여 있고, 다시 외화에 수학교사가 하고자 하는 말로 마무리.

난쟁이 가족의 삶을 통해 도시 재개발 이면에 숨겨져 있는 도시 빈민, 소외된 계층의 삶의 애환을 그리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내용을 우화적인 수법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과거와 현재의 중첩, 환상적인 분위기 설정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 작품은 외화와 내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화에서 아이들이 이 신뢰하는 수학교사는 마지막 시간에 아이들에게 뫼비우스의 띠와 굴뚝 이야기를 들려 준다. (내화에서, 꼭추와 앓은뱅이는 혈값에 팔아버린 아파트 입주권을 되찾기 위해 입주권을 산 사내에게 폭력과 살인 그리고 방화를 행사한다. 꼭추와 앓은뱅이는 사내의 이득 몫을 뺀 나머지 이십만 원을 자신들의 몫이라며 찾아온다 -

滿開(만피)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앓은뱅이와 꺾추, 몸도 성하지 않고 생활도 어려운 그들의 집이 무너져 버린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그들은 살 집을 빼앗겨 버린 것이다.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지만, 입주금이 없어 시에서 주는 이주 보조금보다 약간 많은 돈을 받고 입주권을 팔고는 자신들의 집에 세든 사람들의 전세금을 계산해 주고 무일푼이 돼 버린 채,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었다. 동네의 다른 사람들은 집을 잃을 때 쇠망치를 든 사나이들과 한 바탕 다툼을 벌였지만, 꺾추네 식구들은 가만히 있다.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 집마저 잃어 버린 그들은 복수를 결심한다. 기름통까지 준비하고 마음도 굳게 먹는다. 그러나 앓은뱅이는 적극적인 반해 꺾추는 겁을 낸다. 앓은뱅이는 살이 피동피동한 부동산업자를 만나 그와 집의 가격에 대해 이야기한다. 부동산업자의 거짓말에 화가 난 앓은뱅이는 그를 차에 태운 후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다. 잔인한 살인을 하게 된 앓은뱅이, 그와 함께 복수를 음모한 꺾추이지만, 그는 그런 앓은뱅이가 무서워진다. 앓은뱅이는 강냉이 기계를 사서 생활할 계획을 세우고 꺾추는 약장수를 따라가겠다고 나선다. 그는 앓은뱅이의 복수심이 무서워 떠나겠다고 한다. 둘은 헤어지고 혼자 남은 앓은뱅이는 눈물을 흘린다.). 평면인 종이를 길쭉한 직사각형으로 오려서 그 양끝을 맞붙이면 안과 겹 양면이 있게 된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꼬아 양끝을 붙이면 안과 겹을 구별할 수 없는, 한 쪽 면만 갖는 곡면이 된다. 안과 밖이 구별되지 않는 뫼비우스의 띠는 곧 우리가 갇혔다고 생각한 세상도 갇히지 않는 곳이며, 억압되어 있다고 느껴 탈출을 시도해도 되돌아 올 수밖에 없는 곳이다. 수학 교사는 아이들에게 말한다. "인간의 지식은 터무니없이 간소한 역할을 맡을 때가 많다.... 제군은 제군의 지식이 제군이 입을 이익에 맞추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나는 제군을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 사물을 옳게 이해할 줄 아는 사람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이제 나의 노력이 어땠었나 자신을 테스트해 볼 기회가 온 것 같다. - 문학과 지성 1976. 여름. 세대 1976. 2월. -

(2) 칼날

회사원 남편을 둔 신애라는 중년 부인의 눈에 비친 세상의 모습이다. 신애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난쟁이를 따스한 눈으로 바라보고, 난쟁이가 어려움을 당하자 구해 주기도 한다.

꿈 많고 총명했던 신애는 책을 쓰는 게 소원이었던 현우와 희망을 품고 결혼한다. 그러나 죽어라 돈을 벌어도 허덕이게 된 부부는 이제 가족 간의 의사 소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문만 보는 현우,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는 큰아들, 라디오를 켜 놓고 공부하는 딸. 이들 가족은 공무원, 제과 회사 차장 집들에 둘러 싸여 있다. 그들은 다 돈이 많이 드는 자가 수도를 놓고 밤에 물 받는 걱정을 안 한다. 신애는 수도꼭지를 낮춰 달면 물 받기가 수월해진다는 난쟁이의 말을 믿고 그에게 일을 맡긴다. 수도 설치하는 화가 난 사내들은 신애네 집으로 찾아와 난쟁이를 폭행한다. 신애는 부엌의 생선칼로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내들은 살의를 갖고 있는 신애가 두려워 도망 간다. 수도꼭지를 단 그 날 밤 난쟁이의 말처럼 정말 수돗물이 흘러 나왔다. - 문학사상 1975. 12월.

(3) 우주 여행

수험생 윤호의 가정 교사인 대학생 지섭이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난쟁이 가족의 비참한 삶과, 지금의 수능 시험과 비슷한 예비 고사를 치르는 젊은이들의 방탕한 생활이 대비되어 있다.

윤호의 아버지는 윤호를 A대학 사회계열에 보내기 위해 지섭을 가정교사로 데려왔다. 윤호는 지섭을 알게 된 후 세상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하게 되었다. 지섭은 윤호에게 날개를 쓰지 않아 퇴화된 도도새[dodo 도도과의 새. 몸의 길이는 80~100cm, 무게는 25kg 정도의 거대한 새이며, 잿빛 청색 내지 흰색이다. 부리 끝이 굽었고 날개는 퇴화하여 날지 못하며 다리는 짧고 튼튼하며 짧은 꼬지는 뒤로 뻗어 올랐다. 17세기까지 모리셔스 제도에 살았으나 멸종하였다. 일명 우구(愚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鳩). (Raphus cucullatus)] 이야기를 해 주기도 하고, 우주인을 만나게 해 주겠다며 윤호를 데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도 갔다. 난쟁이와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다. 그 날 밤 윤호와 지섭은 달나라에 관한 얘기를 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산소가 없고, 권태로운 달나라 얘기를 한 윤호와 달리 지섭에 없는 행복이 달에 있을 거라고 지섭은 말했다. 윤호는 대학에 떨어졌고 지섭은 쫓겨났다. 윤호는 학원에 나가 강의를 받고 개인 그룹을 지어 족집게 특수 지도를 받았다. 윤호는 특수 지도를 받는 아이들 가운데 맑고 깨끗한 은혜를 알게 된다. 예비고사 날 윤호는 특수 지도반 아이들 중 타락하고 쓰레기 같은 인규로부터 답안지를 보여 달라는 제의를 받는다. 대신 인규가 은혜에 대한 관심을 끊겠다는 일종의 거래였다. 스스로에게 환멸을 느낀 윤호는 자살하기 위해 아버지가 숨겨둔 권총을 찾았다. 그 때 은혜가 윤호를 방문하고, 윤호는 은혜에게 권총을 쏘 자신을 달나라로 보내달라고 한다. 은혜는 권총을 쏘는 대신 어머니가 없는 윤호를 어머니처럼 두 팔로 감싸안았다. - 뿌리깊은 나무 1976. 9월. 문학과 지성 1977. 봄.

(4)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1부에는 서술자는 영수로 난쟁이 가족이 철거 계고장(행정상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을 받아 행복동에서 내쫓기게 된 상황이 되고, 가족들의 생활이 과거, 대과거, 현재로 교차되면서 중첩되어 묘사되고 있다.

2부에는 서술자가 영호로 난쟁이의 딸 영희가 집을 나가고, 아파트 입주권을 투기꾼에게 판 난쟁이의 집이 철거되는 상황이,

3부에서 서술자는 영희로 영희가 투기꾼 사내의 금고에서 입주권과 돈을 들고 나와 아파트 입주 절차를 마치고, 신애 아주머니에게서 아버지의 죽음을 듣는 상황이 펼쳐지고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하고는 사회에 대해 절규한다.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성격 : 사회 고발적, 동화적

●배경 : 1970년대, 도시의 빈민촌

●시점 : 1인칭주인공시점('영수 - 영호 - 영희'로 시점이 이동됨)

●인물 :

아버지 : 변두리 생활을 하는 인물로 삶의 절망 끝에 공장 굴뚝 위에서 '달나라'를 향해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작은 쇠공을 쏘아올리다 추락사 한다. 현실을 초월한 이상 세계를 갈망하는 인물이다.

어머니 : 노동 현장에 뛰어 들어 어렵게 가게를 꾸려나가는 인고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

영수 : 큰아들로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있고, 주관이 뚜렷하다.

영호 : 현대 사회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분노한다.

영희 :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인물로 지배층에 의해 무너지지만 지배계층과의 대결 의지를 지니고 있는 인물.

●소재의 상징적 의미

달나라 : 이상적인 세계이자, 사랑의 세계

작은 공 : 절실한 염원의 상징이자, 난쟁이 아버지를 상징

팬지꽃 : 순수한 영희를 상징하고, 현대 문명에 의해 훼손된다.

●주제 : 도시빈민의 비참한 삶과 좌절, 산업 사회에서 소외된 도시 빈민계층의 삶의 고통과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꿈

●줄거리 : 난쟁이 가족이 사는 낙원구 행복동에 이십 일 안에 자진 철거하라는 철거 계고장이 날아들었다. 동생 영호는 집에서 떠날 수 없다고 버티었고, 울기 잘하는 영희는 훌쩍훌쩍 울기만 하고,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을 떼어 간직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갈 형편이 되지 않는 행복동 주민들은 하나, 둘씩 입주권을 팔기 시작했다. 입주권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아 갔다. 난쟁이네 집도 입주권을 팔고 전셋돈을 빼 주어야 했지만 난쟁이네 가족은 아

滿開(만피) : 끝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버지와 어머니가 돌을 이어 나르고 시멘트를 직접 발라 만든 집에 애착을 갖고 있었다. 이웃집 명희 어머니는 명희가 죽고 남긴 통장에 든 돈을 난쟁이네 집에 전셋돈 빼주라고 빌려주었다. 명희는 나(난쟁이 집 큰아들 영수)를 좋아했다. 그녀가 바라던 건 내가 다른 아이들처럼 공장에 가지 않고 공부를 많이 해 큰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명희는 다방 종업원에서 캐디로, 버스 안내양으로 전전하다가 통장에 십구만 원을 남기고 자살했다. 나와 동생(영호)은 아버지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자 인쇄 공장에 나가게 됐다. 아버지는 당신의 형편에 어울리지 않게 길 건너 고급 주택에서 가정교사를 하는 지섭과 애기를 나누곤 했다. 지섭은 사랑이 없이 욕망만 떠도는 땅을 떠나 달나라로 가야 한다고 아버지에게 말하고 "일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빌려주었다. 인쇄 공장 사장은 불황이라는 단어를 빌미로 삼아 우리에게 쉬지 않고 일할 것을 강요했다. 나와 영호는 사장에게 가서 힘든 노동 시간에 대해 사장과 협상하려다 일도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하고 공장에서 쫓겨났다. 아버지는 나와 영호에게 큰 일을 한 것이라고 추켜 주었다. 입주권 가격이 자꾸 올라가자 난쟁이네 가족은 이십오만 원을 받고 검정 승용차를 타고 온 남자에게 입주권을 팔았다. 집은 헐리고, 영희와 아버지가 사라졌다. 영희는 검정 승용차를 타고 온 남자를 따라갔다. 남자는 영희에게 대꾸하지 않고 말만 잘 듣는다면 많은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 영희는 남자를 따라가 좋은 음식을 먹고 남자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들었다. 영희는 자신이란 환경이 많이 다른 남자의 집에 적응할 수가 없었다. 그 곳에서 뭐하냐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영희에게 들려왔다. 영희는 남자의 금고에서 자신의 집 때문에 달려 있던 알루미늄 표찰을 되찾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영희는 표찰을 내고 아파트 입주 신청서에 아버지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적어 넣었다. 신애 아주머니는 열이 나 아파하는 영희를 방에 데리고 가 간호를 해 주며 말했다. 아버지가 굴뚝 속에서 죽은 채로 발견 됐다고. - 문학과 지성 1976. 겨울.

● 의의 : 시간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문단이 반복되기도 한다, 이는 파편화된 현실을 나타내는 데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말하기 힘든 주제를 미학적 양식으로 구현하는 역할도 한다. 이 작품은 난쟁이 가족의 삶으로 요약되는데, 난쟁이라는 설정 자체가 태생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핍된 우리의 근대사를 드러낸다, 자기 삶의 터전을 일구지 못한 도시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과 그에 따른 절망을 냉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5) 육교 위에서

대학 신문을 통해 시대와 사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펼치려 했던 대학생이, 사회에 나와 점차 자신의 이상을 버리고 현실에 빠져 드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신애는 위가 나빠 병원에 누워 있는 동생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혼잡한 사람들을 헤집고 육교를 지나가던 신애는 동생과 단짝 친구가 일하는 직장의 건물을 보고 동생과 동생 친구의 대학 생활과 또 소원해진 관계에 대해 생각한다. 동생과 동생 친구는 학교 때 제대로 자신들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대학 신문에 기고하기로 결정하고 교수였던 주간에게 보여 준다. 그러나 주간은 불온한 글이라며 실지 못하게 했다. 둘은 몰래 등사를 해 교내에서 학생들에게 그 글을 나누어 준다. 주간은 둘의 행동에 대해 사태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으며 이제 현실을 파악하라고 충고한다. 둘은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들마저 떠나고 둘 만 남은 느낌을 받는다.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만난 동생과 동생친구는 입장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친구의 직장엔 주간이 우두머리가 되어 왔고 주간은 자신이 끌어 줄 테니 함께 일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그후 동생 친구는 변했다. 좋은 집에, 아내와 아이를 기르며 안락한 생활의 길로 접어들었다. 신애는 병원에 들려 동생의 아이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채 웃고 있는 사진을 보았다. - 세대 1977. 2월.

(6) 궤도 회전

滿開(만피) : 끝이 황백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재수생 윤호와 경애의 이야기로 경애는 큰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가의 손녀인데, 지섭을 통해 이미 세상에 눈을 뜬 윤호로부터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우친다.

아버지의 기대와 어긋나게 셋째 해 예비고사에서 떨어진 윤호는 철사로 매를 맞았다. 아버지의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진 윤호는 '노동수첩'이라는 책을 읽었다. 윤호는 행복동에서 북한산으로 이사간 깨끗한 동네에서 이 책을 읽었다. 어느 날 길 건너 집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경애를 알게 되었다. 경애는 윤호를 '십대 공원'이라는 토론 주제 모임에 참가시킨다. 윤호는 이 모임에 나가 자신이 만난 난쟁이가족에 대해 얘기해 준다. 은강시 공장에서 일하는 난쟁이의 아들, 딸에 대해 얘기를 해 주었으나 아이들은 지루해 하고 색다른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었다. 윤호는 경애에게 말한다. 십대 공원이라는 이 모임을 빌미로 너는 불쌍한 아이들을 팔았다고. 또 회사 대표였던 경애의 할아버지가 공원들에게 돌려 주어야 할 것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으며, 경애 또한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고통받는 걸 몰랐다는 것조차 죄라고 말한다. 경애는 윤호와 함께 있고 싶었던 것도 죄인가로 되묻고 집으로 돌아간다. 경애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이 치러졌다. 윤호는 이 해 자신이 가져야 할 사랑, 존경, 자유...와 같은 과제를 떠올려 보았다. - 한국문학 1977. 6월.

(7) 기계 도시

삼수생 윤호의 생활과 난쟁이 가족이 일하는 '은강'이라는 곳의 이야기다. 은강에서 노동 운동에 발을 들여놓은 큰아들 영수는 윤호에게 은강 그룹의 경영주를 죽이겠다는 결심을 밝힌다.

윤호는 삼수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가 보았던 난쟁이 가족이 살고 있는 동네를 잊지 못한다. 윤호와 사귀는 은희도 윤호가 난쟁이 가족이 일하고 있는 은강을 큰 부피로 떠올리고 있다. 은강은 서울에서 가까운 서해 반도부에 위치한 곳으로 금속, 도자기, 화학, 유지, 조선 등으로 유명한 곳이다. 면적은 백구십육 제곱킬로미터에 인구는 팔십일만 명이다. 공장은 북쪽 지대에 있고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육지에서 바다로 불기 때문에 매연이 이동을 했었는데 어느 날 공장 지대 상공에 머물던 매연이 주거지를 향해 불었다. 사람들은 고통을 호소했다.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많은 양의 폐수는 바다로 흘러갔다. 은강에서 일하는 대다수 공원들은 빈곤 때문에 일자리를 얻었으며, 인간적인 대우를 이 곳에서는 기대할 수 없고, 앞으로 이 곳 생활이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 난쟁이의 큰아들 영수는 윤호에게 은강그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방시키기 위해 은강그룹의 경영주를 죽이겠다고 말한다. 윤호의 옆집에 사는 은강그룹의 경영주를 죽일 수 있도록 자신을 윤호의 집에 머물게 해달라고 한다. 윤호는 난쟁이의 큰아들 혼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 도움 생각을 해 본다. - 대학신문 1977. 6월

(8)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

공장에 취직했지만 빈민굴에 살 수밖에 없는 난쟁이 가족의 삶이 드러나 있다. '생활비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생존비'에 지나지 않는 어머니의 가계부를 보며, 영수는 독일에 있다는 난쟁이 마을 릴리프트를 생각한다.

영희는 나(영수)에게 독일에 있다는 릴리프트에 얘기를 한다. 억압, 공포, 불평등이 없는 난쟁이 마을 얘기였다. 벽돌 공장 굴뚝 안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아버지는 릴리프트에 같은 마을에 사셨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은강 자동차에서, 동생 영호는 은강전기 제일 공장에서, 막내 영희는 은강방직 공장에서 일한다. 특별한 기술을 익히지 못한 우리는 그 곳에서도 제일 낮은 계급에 속했으며, 어머니는 우리가 벌여주는 돈으로 빠듯하게 생계 유지를 해 나가셨다. 하루 아홉 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에 잠깐의 휴식이 우리 생활의 전부였다. 나는 월급을 탄 날 지부장을 만나러 가 시간외 근무 수당의 부적절한 지급과 동료의 부당 해고 문제에 대해 항의했다. 그는 나의 말에 모두 동의했지만 회사 사람이었고 노동자를 위해

滿開(만피)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나는 해고자 명단에 오르기 전에 은강자동차에서 나와 은강방직 공장으로 옮겨갔다. 은강에서는 생존을 위해 죽어라 일해야 했다. 우리의 생존비용으로 가득 채워진 어머니의 가게부를 덮으며 나는 릴리푸트읍에 대해 생각했다. - 문학사상 1977. 10월.

(9) 잘못된 신에게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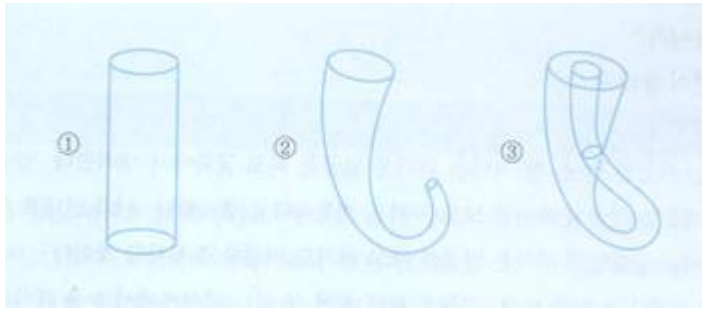
난쟁이 가족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꿈꾸는 세상의 모습과 노사 협상 장면이 펼쳐진다. 그들은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꿈꾸며 살지만, 은강에서는 신마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아버지가 꿈꾸던 세상은 모두에게 할 일을 주고, 일한 대가로 먹고 입고, 누구나 다 자식을 공부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였다. 지나친 부의 축적을 사랑의 상실로 공인하고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법을 가져야 하는 세상이라면 이 세계와 다를 것이 없다고 나(영수)는 생각했다. 방직공장에서 일하는 영희는 벌써 30도 이상 되는 공장 내부에서 줄면서 일했고 작업반장은 조는 영희에게로 다가와 빨간 피가 배어 나게 옷핀을 찔렀다. 나는 그곳에서 기사 조수로 일했다. 공장에서 사고가 일어나 공원들이 죽어갔다. 노동조합 지부장이 끌려가고 공원들이 무더기로 해고당하는 좋지 않은 사태가 공장 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새로 선출된 지부장인 영이를 어느 날 영희가 내게 데리고 왔다. 영이와 나는 자주 만나 사용자측과의 만남을 대비한 준비를 했다. 노사 대표가 만나는 회의가 열렸다. 근로자 측은 임금 인상과 정당한 이윤 분배를 요구했다. 사용자측은 근로자 측을 사사건건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로 규정 짓고 들어줄 것이 없다고 답했다. 나는 사랑을 갖지 않는 사람을 벌하기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던 아버지의 말이 옳았다는 생각을 했다. 누구나 잘 못을 저지르고 있으며 은강에서는 신도 예외가 아니었다. - 문예중앙 1977. 겨울.

(10) 클라인 씨의 병[Klein bottle : 독일의 수학자 펠릭스 클라인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뒤틀림을 위해 원통 표면의 두 끝을 반대방향으로 결합하여 얻는 위상공간으로 표면을 3차원의 유클리드 공간에 작도할 수 없으나 뫼비우스 띠처럼 한 면으로 된 재미있는 성질을 갖는다. 닫혀 있으나 원환체나 구처럼 '내부'를 갖지 않고 적절하게 둘로 자르면 2개의 뫼비우스 띠를 얻는다]

영수는 노동조합에 활동에 깊이 관여했다는 이유로 공장에서 쫓겨나고, 블랙리스트(주의나 감시를 필요로 하는 인물의 이름을 적은 문서)에 이름이 오른다. 영수는 안팎이 없는 '클라인 씨의 병'을 보고, 우리의 세계 역시 감혀 있지 않으면서도 감힌 것이고, 감혔다는 것도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본다.

나(영수)는 은강방직에서 노동 조합 운동을 하게 된다. 교회 목사로부터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의식화 교육을 받는다. "근로자의 손해는 경영주의 이익이라는 단순한 지적이 우리의 뒤통수를 쳤다. 부의 증가는 저임금 근로자의 수의 증가와 비례해 왔다는 역사를 그가 들춰냈다. 우리는 그를 믿었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머니는 내가 공장 일만 하기를 바란다. 그러던 어느 날 행복동 철거반원과 몸싸움 끝에 끌려 갔다는 지섭이 노동운동가로 변해 나를 만나러 왔다. 지섭은 내게 노동현장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준다. 지섭이 떠나고 나는 과학자가 만든 이상한 병을 보게된다. 안과 밖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기묘한 형상을 한 클라인 씨의 병이라고 이름 붙은 이 병에서는 안이 곧 밖이고 따라서 안과 밖의 구별이 없으므로, 우리의 세계도 감혀 있지 않으면서도 감힌 것이고 감혔다는 것도 착각이라는 명제를 나는 어렵듯이 짐작하게 된다.[소설 지문에서 - 그가 공장 그의 방에서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병을 보여 주었다. 말이 병이지, 내부가 있어 공간이 밀폐되는, 그런 보통의 병이 아니었다. 대롱 벽에 구멍을 뚫어 한쪽 끝을 구멍에 넣어 만든 이상한 병이었다.



과학자는 그것을 '클라인씨의 병' 이라고 했다. 그림 ③이 바로 그것이다. 과학자는 그림 ①과 같은 유리 대롱으로 그 병을 만들었다. 그림 ②처럼 원기둥의 한쪽을 넓게 하고 그 반대쪽을 좁게 변형시킨 다음 벽에 구멍을 뚫어 그림 ③을 완성한 것이다. 종이는 안과 밖 두면을 갖는데, 학자들은 '안팎이 없는 한 면의 종이', '안팎이 없고 닫혀 있는 공간' 등,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상아름다운 것들도 연구하게 된다고 했다. 과학자가 내게 보여준 이상한 병도 독일의 수학자 펠릭스 클라인이 순전히 논리의 결과인 추상적인 측면에서 연구하여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과학자는 의아해하는 나에게 말했다. "이것이 클라인씨의 병야. 안팎이 없는 데 닫힌 공간이 있어." 나는 그림 ③의 병을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나는 내가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초등적이며 단순한 생각이 기본이 된 문제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과학자는 교육적으로 어떤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상식적인 방법에 의해 문제의 핵심을 뚫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리의 구매를 받으면 문제를 자꾸 복잡하게 만들게 되니까 쉽게 생각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정말 내부가 없군요." 내가 말했다. "안팎을 구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닫혀 있는 공간이란 말도 알겠어요." 과학자가 웃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내부와 외부의 구분이 있으면 이런 현상은 없지." 그날 나는 이 병을 왜 나에게 보여주느냐고 물었고, 과학자는 병을 완성한 순간에 네가 왔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나에게는 우연 같지가 않았다. 더욱 알 수 없는 것은 그림 ③의 실체가 내 눈앞에 있는데 그 실체를 무시하고 상상의 세계에서만 그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림 ③을 들고 "그럼 이것은 뭘니까?" 내가 물었는데 그는 간단히 "그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중략)...

"이제 알았어요."

빠른 목소리로 나는 말했다.

"이 병에서는 안이 곧 밖이고 밖이 곧 안입니다. 안팎이 없기 때문에 내부를 막았다고 할 수 없고, 여기서는 갇혔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벽만 따라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죠. 따라서 이 세계에서는 갇혔다는 그 자체가 착각예요."

과학자는 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대로야."

과학자가 말했다.

그가 '클라인씨의 병'을 들고 나를 향해 돌아섰지만 나는 그의 방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은강방직 보전반 기사 조수는 빠른 걸음으로 공장을 향해 걸어갔다.] - 문학과 지성 1978. 봄.

(1)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은강 그룹 경영자의 손자인 경훈의 눈에 비친 세상이 그려져 있다. 강자는 약자에게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훈은 숙부를 찢어 죽인 영수와 그를 싸고도는 지섭, 그들을 따르는 어린 공장 노동자들을 경멸한다. 결국 영수는 사형 선고를 받고, 경훈은 그물에 큰 가시고기들이 걸리는 꿈을 꾸다.

숙부를 은강그룹의 회장으로 착각한 공원의 칼에 맞아 숙부는 죽었다. 사촌은 미

滿開(만피)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국에서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왔다가 나(은강그룹 경영주 아들 경훈)와 함께 법정에 참석한다. 범인은 은강방직 기사로 일하던 난쟁이 가족 큰아들이었다. 사람이 죽은 엄연한 사실을 갖고 변호인 측은 은강 그룹 회장이 노동자의 억압의 중심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죽어야 했다는, 부정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투사적 논리까지 펴나간다. 변호인 측 증인으로 등장한 손가락이 여덟 개뿐이 없는 지섭은 난쟁이의 큰아들은 이상을 펴려다 고생을 했으며 지금도 난쟁이 큰아들과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집단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논리를 편다. 마음 약한 사촌은 그들의 논리에 열심히 귀 기울이고 무엇이 사실인가를 나에게 설명한다. 공판은 끝나고 사촌형은 떠났다. 재판 결과는 난쟁이 큰아들에게는 사형이 선고됐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기대를 품었던 공원들은 혼란과 착각에 빠졌고 재판에 승소할 것처럼 기세 등등하던 변호인은 낙담했다. 이번 일로 나는 공원들의 행복과 부모님이 내게 주신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 창작과 비평 1978. 여름.

●줄거리 :

발단 - '나'는 은강 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은강 공장에서 올라온 한 노동자(영수)가 '나'의 숙부를 아버지로 착각하여 살해하고,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서 사촌형(윤호)이 돌아온다. 그는 살인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나'의 관심사는 오직 후계권과 성적인 것에만 쏠려 있다.

전개 - 사촌형과 함께 공판에 참석한 '나'는 공판정 앞에서 노동자들에게 둘러싸여 아버지를 모욕하는 노래를 듣는다.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온 한지섭은 영수를 두둔한다. '나'는 그들에게 증오를 느낀다.

위기 - 검사와 변호사의 심문을 통해 영수의 살해 동기가 드러난다. 은강 그룹의 적대적인 노동행위가 드러난다. 영수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 행위가 의도적인 것이었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절정 - 공판이 끝나고 영수는 사형 선고를 받고, '나'는 어머니에게 공장 노동자들이 행복한 마음을 갖고 일하게 하려면 약을 먹이면 된다고 말했다고 핀잔을 듣는다.

결말 - '나'는 '내'가 쳐 놓은 그물에 가시고기가 걸려들고 그들이 달려들어 '나'를 공격하는 꿈을 꾸다.

●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 주제 : 지배 계층의 허위의식 고발

(12) 에필로그[(epilogue : ① 문학에서는 시가, 소설, 연극 따위의 끝나는 부분. ② 음악에서는 소나타 형식의 악장에서, 부주제 뒤의 작은 종결부. <-> 프롤로그(prologue) ① 문학에서는 = 서시(序詩), 연극 영화에서는 극의 앞부분에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배우가 극의 내용을 소개하는 일. 또는 그 대사.]

'외비우스의 띠'에 등장했던 수학 교사가 교실로 들어와 예비 고사 수학 성적이 떨어진 책임을 지고 윤리 과목을 맡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작은 흑성으로 우주여행을 떠나기로 했다는 말을 남기고는 교실을 나선다. 한편 악장수를 따라나섰다가 실컷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은 꼬추와 앓은뱅이는, 사장을 잡으러 나섰다 영수가 죽어 나왔다는 감옥을 발견하고는 복수를 포기한다.

수학 선생은 예비고사 성적에서의 부진을 이유로 윤리 교사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학생들에게 이런 상황으로 물리게 된 제도적 문제점과 그래서 그가 지구를 떠나 우주로 여행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 (외비우스의 띠에 등장했던 꼬추와 앓은뱅이는 악장사를 따라 떠났으나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지내는 생활을 하고 있다. 앓은뱅이와 꼬추는 자신들을 따돌리고 도망쳐 버린 사장을 찾아 한 밤중 떠난다. 도중에 그들은 난쟁이 큰아들이 갇혀있다 죽어 나온 형무소를 보게 된다. 꼬추는 앓은뱅이에게 사장을 죽이기 위해 품고 있는 칼을 버리라고 말한다.) - 문학사상 1978. 3월.

滿開(만피)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출전 : 문학과 지성(1976)

[진명문학Ⅱ] 편지2 이종성 화가께

가슴에는 천도복숭아
영당이에 사과가 익어 가는
내 아이는
지금 향내로 가득합니다.
곧 연둣빛 싹도 살며시 돌고
계집아이 수줍음도 돌아나겠지만
내 아이는
더 자라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뛰어노는
당신의 아이들 속에
벌거벗은 채로
봄을 가지고 화평을 가지고
영원을 가지고 놀게 하고 싶습니다.
찢어진 은지 속에서도
아름다운 세상 만들며
●순연한 부드러움
맑은 영혼 영혼으로—.

- “ 보면서”(1988)

[진명문학 II] 성혜꽃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혜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 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 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혜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 “ ”(1990)

요점 정리

- 지은이 : 최두석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참여시
- 성격 : 사회 비판적(현실 참여적), 상징적, 회화적, 감각적
- 어조 : 우울한 사회 현실을 노래하는 낮고 잔잔한 어조
- 구성 :
새벽 시내 버스에 피어 있는 성에꽃
성에서 힘겹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함
소박한 이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함.
옥중의 친구를 떠올림
- 제재 : 성에꽃
- 주제 : 80년대 동시대적인 민중들의 삶에 대한 애정, 어둡고 현실 억압적인 사회와 민중들의 비참한 삶,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과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 표현 : 상징법, 역설법
- 출전 : <성에꽃>(1990)

내용 연구

새벽 시내버스는[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의 운송도구로 민중들의 일상적이고 고단한 생활의 모습을 보여줌]

차창[화자가 바깥 세계를 바라보는 통로]에 웬 찬란한 치장[뒤에 나오는 성에꽃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기막힌 아름다움, 꽃 이파리, 정열의 숨결과 의미가 통한다.]을 하고 달린다

엄동 혹한일수록[1980년대 전두환 독재 정권의시대적 고난과 시련이 심할 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동시대인들의 삶의 숨결을 상징하는 것으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이 피워낸 꽃, 동시대인들의 숨결과 입김으로, 공동체 의식 그 자체의 의미]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동시대를 살아가는 보통 민중들 / 장삼이사]의

입김과 숨결이 [연민의 정으로 가난한 민중들의 모습을 발견]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동시대인들의 삶의 숨결이 피워 낸 아름다운 성에꽃의 은유적 표현으로 공동체 의식이 담겨 있음]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다니며 보고[이웃들의 삶과 정서를 자신에게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로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담겨 있다]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역설적 표현. 성에서 서민들의 살아가는 아름다운 몸짓을 본다는 말로 한겨울의 팍팍한 현실 속에서 이웃들이 피워 낸 꽃이기에 차창의 성에꽃은 역설적인 아름다움을 담고 있으며 촉각적 이미지]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서민들이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적 현실]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서민들의 생애에 대한 열정 혹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열정으로도 이해됨]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차가 덜컹거리는 순간 차창에 어리는 영상이 바뀐다는 말로 여기서 창은 흔히 바깥 세상의 풍경을 내다보는 매개체로 등장하는데 이 작품에서도 이른 새벽 성애가 낀 버스의 창은 세상을 바라보는 통로이다. 화자는 새벽 시내 버스의 유리창에서 개미처럼 성실히 살아가는 서민들의 아름다운 몸짓을 보다가 차가 덜컹거리는 순간 돌연 장면이 바뀌면서 차단당하고 지금은 면회마져 금지된 친구의 푸석한 얼굴이 그 한숨과 정열의 아름다움을 가로막고 만다는 말로 어려운 삶 속에 있지만 친구를 잊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음]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민중과 민족에 대한 애정을 실천하는 삶인 민주화운동]

지금은 면회마져 금지된 친구여[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친구와 화자가 단절되어 있는 1980년대의 암울한 정치적 상황을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정지용의 '유리창1'발상이나 형상화의 수법에서 매우 비슷한 면이 있다. 창(窓)을 통해 시상을 불러일으키고, 또 이 창을 통해 무언가를 보려 한다는 점에서 시적인 맥락이 비슷하다. 정지용의 '유리창1'이 자식을 잃은 슬픔을 절제된 언어로 내면화했다면, 최두석의 '성애꽃'은 사회적인 의미를 획득하며 이를 내면화했다. 그리고 시인의 민중적인 시선은 이 성애꽃을 고통과 희망의 복합체로 여기며 엄동설한과 같은 80년대의 우울한 사회 분위기를 서정적인 가락으로 노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는 시적 화자가 새벽 버스 창에 성애꽃을 바라보며, 거기서 80년대 민중들의 삶의 숨결을 발견함으로써, 민중적 삶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민중에 대한 연민과 공동체 의식의 발견에서 80년대의 암울한 군사독재정권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작품이다.

그런데 힘들지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민중들의 삶을 방해하는 독재정권에 맞서 현실의 모순을 뚫고 나아가려다 영어(圜圍)의 몸이 된 친구 역시 아름다운 사람이고 시적 자아에게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 시는 이렇듯 소외된 자리에서 '푸석한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연대감을 조용하고 차분한 어조로 노래하고 있는 시이다.

[진명문학 II] 큰누님 박씨 묘지명

①유인(孺人) ②휘(諱) 모(某)는 ③반남(潘南) 박씨(朴氏)인데, 그 동생 지원(趾源) ④중미(仲美)가 다음과 같이 묘지명을 쓴다.

유인은 열여섯에 ⑤덕수(德水) 이씨 택모(宅模) 백규(伯揆)에게 시집을 가 딸 하나와 아들 둘을 두었으며 신묘년(辛卯年, 1771년) 9월 1일에 세상을 뜨니 나이 마흔셋이었다. 남편의 선산은 ⑥아곡(谷)인 바 장차 그곳 ⑦경좌(庚坐) 방향의 뒤횈자리에 장사지낼 참이었다.

백규는 어린 아내를 잃은 데다가 가난하여 살아갈 도리가 없자 어린 자식들과 계집종 하나를 이끌고 술과 그릇, 상자 따위를 챙겨서 배를 타고 산골짜기로 들어가려고 상여와 함께 출발하였다.

나는 새벽에 ⑧두뫼개(斗母)의 배에서 그를 진송하다 통곡하다 돌아왔다.

아아! 누님이 시집가던 날 새벽에 얼굴을 단장하시던 일이 마치 엇그제 같다. 나는 그때 막 여덟 살이었는데, 발랑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다가 새신랑의 말을 흉내 내 더듬거리며 점잖은 어투로 말을 하니, 누님은 그 말에 부끄러워하다 그만 빗을 내 이마에 떨어뜨렸다. 나는 곧이 나 울면서 분에다 먹을 섞고 침을 발라 거울을 더럽혔다. 그러자 누님은 옥으로 만든 자그만 오리 모양의 노리개와 금으로 만든 벌 모양의 노리개를 꺼내 나를 주면서 울음을 그치라고 하였다.

지금으로부터 스물여덟 해 전의 일이다.

강가에 말을 세우고 멀리 바라보니 붉은 ⑨명정(銘旌)이 펄럭이고 배 그림자는 아득히 흘러가는데, 강굽이에 이르자 그만 나무에 가려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문득 강 너머 멀리 보이는 산은 검푸른 빛이 마치 누님이 시집가는 날 쪽진 머리 같았고, 강물 빛은 당시의 거울 같았으며, 새벽달은 누님의 눈썹 같았다. 울면서 그 옛날 누님이 빗을 떨어뜨리던 걸 생각하니, 유독 어릴 적 일이 생생히 떠오르는데 그때에는 또한 기쁨과 즐거움이 많았으며 세월도 느릿느릿 흘렀었다. 그 뒤 나이 들어 이별과 근심, 가난이 늘 떠나지 않아 꿈결처럼 훌쩍 시간이 지나갔거늘 형제와 함께 지낸 날은 어찌 그리도 짧은지. ●

⑩떠나는 이 정녕코 다시 오마 기약해도

보내는 자 눈물로 옷깃을 적시거늘

이 외배 지금 가면 어느 때 돌아올꼬?

보내는 자 쓸쓸히 강가에서 돌아가네.

◆요점 정리

- 작가 : 박지원
- 갈래 : 묘지명
- 제재 : 누님의 죽음
- 주제 : 누님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그리움
- 특징 : 통상적인 묘지명과는 달리 어린 시절의 일화를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작품의 끝에 시를 덧붙여 작가의 애절한 심정을 전달함
- 줄거리 : 43세를 일기로 누이가 죽자 자형은 가난하여 살 길이 막막하여 어린 조카들을 데리고 산골로 들어가 살려고 상여와 함께 배를 타고 떠나 이를 통고하며 글을 쓴다. 시집 가던 날 동생의 집안은 장난을 자애롭게 받아준 누님을 생각해 보니 누님이 더욱 그리워진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누님을 다시 볼 수 없게

滿開(만개) : 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되어 더욱 서글퍼지고 인생이 무상한 것 같다.

내용 연구

유인(孺人 : 생전에 벼슬하지 못한 사람의 아내의 신주나 명정(銘旌)에 쓰는 존칭으로 글쓴이의 죽은 누이를 가리킴)의 이름은 아무이니, 반남 박씨이다. 그 동생 지원(趾源) 중미(仲美)는 묘지명을 쓴다. 유인은 열여섯에 덕수(德水) 이택모 백규에게 시집 가서 딸 하나 아들 둘이 있었는데, 신묘년 9월 1일에 세상을 뜨니 마흔 세 해를 살았다. 지아비의 선산[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 선릉(先壟). 선영(先塋). 선묘(先墓).]이 아곡인지라, 장차 서향의 언덕에 장사지내려 한다.

백규가 그 어린 아내를 잃고 나서 가난하여 살 길이 막막하여, 어린 것들과 계집종 하나, 술과 그릇, 옷상자와 짐 껌을 이끌고 강물에 띄워 산골로 들어가려고 상여와 더불어 함께 떠나가니[시집 간 이후 고난의 연속이었을 누이의 삶에 대한 연암의 안타까움과 안쓰러운 마음], 내가 새벽에 두포(斗浦)의 배 가운데서 이를 전송하고 통곡하며 돌아왔다. - 글을 쓰게 된 동기 - 누님의 죽음

아아! 누님이 시집 가던 날 새벽 화장하던 것이 어제 일만 같구나. 나는 그 때 갓 여덟 살이었다. 장난치며 누워 발을 동동 구르며 새 신랑의 말투를 흉내내어 말을 더듬거리며 점잔을 빼니, 누님은 그만 부끄러워 빛을 떨구어 내 이마를 맞추었다. 나는 성나 울면서 먹으로 분을 뒤섞고, 침으로 거울을 더럽혔다. 그러자 누님은 옥 오리, 금 벌 따위의 패물을 꺼내 내게 뇌물로 주면서 울음을 그치게 했었다[자애로운 누님의 성품]. 지금에 스물여덟 해 전의 일이다.[어린 시절 누님에 대한 일화 소개] - 누님이 시집 가던 날의 모습(과거 회상)

말을 세워 강 위를 멀리 바라보니, 붉은 명정(銘旌 : 다홍 바탕에 흰 글씨로 죽은 사람의 품계·관직·성씨를 기록한 기.)은 바람에 펄럭거리고 돛대 그림자는 물위를 꿈틀거렸다. 언덕에 이르러 나무를 돌아가더니 가리워져 다시는 볼 수가 없었다[누님이 살아서는 다시 볼 수 없는 세계로 영원히 가 버렸다는 의미]. 그런데 강 위 먼 산은 검푸른 것이 마치 누님의 쪽진 머리 같고, 강물 빛은 누님의 화장 얼굴 같고, 새벽 달은 누님의 눈썹 같았다. [누님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 그래서 울면서 빛을 떨구던 일을 생각하였다. 유독 어릴 적 일은 또렷하고 또 즐거운 기억이 많은데, 세월은 길어 그 사이에는 언제나 이별의 근심을 괴로워하고 가난과 곤궁을 근심하였으니, 덧없기 마치 꿈속과도 같구나[인생무상 : 덧없는 인생을 이르는 말]. 형제로 지낸 날들은 또 어찌 이다지 짧았더라 말인가.[누님과의 정겹고 아름다운 순간을 현재의 상황과 대조하여 누님이 없는 현재의 쓸쓸함을 느끼게 함] - 상여를 보내고 홀로 서 있는 모습

떠나는 이[글쓴이의 누님] 정녕코 뒷 기약을 남기지만

오히려 보내는 사람[글쓴이 자신 박지원] 눈물로 옷깃 적시게 하네[연민의 눈물].

조각배[누님의 상여를 실은 배] 이제 가면 언제나 돌아올꼬

보내는 이 하릴없이[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언덕 위로 돌아가네.

이해와 감상

누님의 상을 당하여 여덟 살 터울의 동생인 작가가 직접 쓴 묘지명이다. 묘지명으로서 형식상, 내용상의 파격을 보이고 있는데, 누이가 시집 가던 날의 일화를 잔잔하게 회상하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다. 이를 통해 죽은 누님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과 추모의 정을 더 곡진하게 보여 주고 있다. 자형의 곤궁한 삶에 대한 묘사를 통해 자형에 대한 감정을 은근히 드러내는가 하면, 자형을 따라 산골로 들어가는 어린 조카들에 대한 연민도 드러나 있다. 상실감 가득한 심정을 일상적인 묘지명의 상투적인 서술 방식을 피하고 인상적인 삽화와 극적 장면을 중심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고인에 대한 애정과 슬픔을 한층 절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심화 자료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진영문학 II] 시가 된 편지들

나는 편지를 아주 많이 썼던 사람이다. 아니 청춘 시절 편지로 하루를 살았던 사람이다. 산중에서 나 혼자 문학을 공부했으니 너무나 외로운 청춘 시절이었다. 책에서 얻은 지식으로 내 생각을 키웠고 편지로 그 생각들을 검증받고 바른 생각인지 확인했다. 아니 편지를 한다는 그 자체가 내겐 커다란 공부였고 외로움을 달래는 길이었다.

세상을 향한 나의 유일한 통로는 그러므로 우체부 아저씨였다. 방학 때 집에만 틀어박혀 책을 읽고 지낼 때는 우체부 아저씨가 올 시간이면 우리 집 대문에 서서 목을 쭉 빼고 먼 동구 밖을 바라보며 눈이 빠져라 우체부 아저씨를 기다렸다.

나는 우체부 아저씨에게 내 편지를 부치고 내게 오는 편지를 받았다. 생각의 교환이었다. 우체부 아저씨가 오지 않는 날이나, 와도 편지가 없는 날은 내게 우울하고 건달 수 없는 날이었다.

편지가 안 와도 나는 편지를 썼다. 아무 종이에나 길게 편지를 썼다. 인생에 대해서, 우리 동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아름다운 저물과 아침에 대해서, 혹은 조국과 민족의 현실을 퍽없이 진단하고 우려하고 과장해서 분노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희망에 들뜨며, 때로는 내 편지에 내가 감동하며 내 편지는 끝이 없었다. 대상은 늘 바뀌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은 단단하게 여물어 가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 나는 그때 사람의 마음이 끝이 없음을 알았다. ●

어느 해 겨울이었다. 좋아하는 여자와 어디를 갔다가 전주에서 헤어지고 나 혼자 막차를 타고 시골로 왔다. 늦은 시간이었고 달이 높이 떠 있었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바라본 창밖의 겨울 들판 풍경은 아늑하기도 하고 쓸렁하기도 했다. 나는 차창에 이마를 대고 생각에 빠져들었다.

어느덧 늘 내리는 ●차부에 도착했을 때는 10시쯤이었다. 차부에서 집까지는 작은 들길을 30여 분 정도 걸어가야 했는데 나는 늘 그 작은 들의 달빛이 좋았다. 달빛을 가만가만 밟으며 달빛 아래 마을이며 불 꺼진 낮은 지붕이며 검은 산과 들을 천천히 보았다. 오만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다가 물소리 따라 가 버리고 달빛에 부서졌다.

나는 집에 와서 편지를 썼다. 그리고 이튿날 부쳤다. 편지를 부치고 나서 생각하니 그 편지글이 다시 보고 싶었다. 잘 쓴 글 같았다. 시가 될 것 같았다. 나는 다시 또 한 통의 편지를 썼다. 어제 보낸 편지를 다시 돌려 달라고.

다시 온 편지로 나는 시를 썼다.

산 사이

작은 들과 작은 강과 마을이

겨울 달빛 속에 그만그만하게

가만히 있는 곳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 오래오래

논과 밭과 함께

가난하게 삽니다.

겨울 논길을 지나며

맑은 피로 가만히 숨 멈추고 얼어 있는

서린 보리 옆에 얼굴을 대 보면

따뜻한 피만이 얼 수 있고

따뜻한 가슴만이 진정 녹을 수 있음을
이 겨울에 믿습니다.

달빛 산 빛을 머금으며
서리 낀 풀잎들을 스치며
강물에 이르면
잔물결 그대로 반짝이며
가만가만 어는
●살땅김의 잔잔한 끝림과 이 아픔
땅을 향한 겨울 풀들의
몸 다 누인 이 그리움
당신,
아, 맑은 피로 어는
겨울 달빛 속의 물풀
그 풀빛 같은 당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 '섬진강15'

‘겨울, 사랑의 편지’라는 부제가 붙은 이 시는 이런 내용의 편지였다. 그리고 나는 다시 이 시를 그 여인에게 보냈다. 이 여인과는 결국 헤어졌다. 지금도 나는 그 밤의 달빛과 강과 작은 들과 보리 잎들이 손에 잡힐 듯 생생하다.

그 후로도 많은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았다. 시인이 되자 사람들은 내게 찾아오기도 하고 편지도 보냈다. 세월이 갈수록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고 편지들도 많아졌다. 나는 일일이 답장을 쓸 수가 없었다. 그 대신 시를 많이 썼다. 내시가 곧 세상으로 보내는 내 편지였던 것이다.

지금은 더 많은 편지가 온다. 새로 시집을 내거나 신문에 글을 쓰면 갑자기 편지의 양이 늘다. 초등학교 아이들로부터 나이 든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내게 답장을 보내는 것이다. 나는 내게 온 편지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보관하기 때문에 집엔 한 가마니쯤 되는 편지들이 쌓여 있다. 몇몇 고등학교 아이들이 보낸 편지는 참으로 진지하고 감동적이다. 올바르게 자유롭고 나라를 걱정하는 생각들이 건강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에 안심되기도 했다.

요즘은 올해 대학을 들어간 서울의 한 여학생으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고 있다. 그 여학생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틈틈이 나에게 써 온 편지를 노트 한 권으로 묶어 보내 주었는데, 그 여학생의 정신적 발달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대학 노트 한 권의 편지를 한꺼번에 받은 나는 아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내가 먼저 읽고 나도 읽었다.

감동적이었다. 그 여학생은 늘 나하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다. 아니 늘 자기에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신세계를 넓혀 가며 다지고 키워던 것이다.

편지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울이다.

편지는 간절함에 쓰인다. 길가에 피어 있는 풀꽃 한 송이나 겨울 들판 멀리 저문 바람에 나부끼는 억새, 그리고 펄펄 내리는 하염없는 첫 눈송이들을 혼자 보기가 아까워 가장 간절한 사람에게 자기의 생각을 보여 주는 자기 고백의 글이다. 편지는 그래서 거짓이 없는 자기의 얼굴인 것이다. ●

이 가을 해 지는 들판을 보며 가장 그리운 이에게 편지를 쓴다면 그이의 답장이 아름다운 시가 되어 당신에게 오리라.

- “인생” (2000)

[미래엔문학2] 절명시

亂離滾到白頭年 난리를 겪다 보니 머리가 하얗게 세었구나.
 幾合捐生却未然 몇 번이나 목숨을 바치려다 이루지 못했도다.
 今日眞成無可奈 오늘은 참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
 輝輝風燭照蒼天 가물거리는 촛불이 푸른 하늘에 비치도다.

- 1수

鳥獸哀鳴海岳嘯 새나 짐승도 슬피 울고 바다와 산이 쩡그리는데,
 榴花世界已沈淪 무궁화 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는가.
 秋燈掩卷懷千古 등불 앞에 책을 덮고 천고를 회상하니,
 難作人間識字人 이 세상에 지식인 노릇 하기가 어렵구나.

- 제3수

- “매천집”(1911)

❖ 요점 정리

- 지은이 : 황현(黃玹)
- 형식 : 칠언절구 (七言絶句)의 우국시
- 제재 : 국권의 피탈(被奪)
- 성격 : 저항적, 우국적, 고백적, 참여적
- 표현 : 활유법, 대유법
- 구성 :
 제1수에서는 작가가 이미 순명(殉名)에 대한 결심
 제2수에서는 망국에 대한 슬픔
 제3수는 지식인으로서의 자의식을 드러냄.
 제4수는 충(忠)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한 한탄.
- 주제 : 국난에 대처하는 지식인의 고뇌 또는 일제의 국토 강점에 대한 저항 의지, 국권을 강탈당하는 위기에 처한 지식인의 고뇌
- 출전 : 매천집

❖ 내용 연구

절명시 —

1수

亂離滾到白頭年
 幾合捐生却未然
 今日眞成無可奈
 輝輝風燭照蒼天

난리곤도백두년
 기합연생각말연
 금일진성무가내
 휘휘풍촉조창천

난리를 겪다 보니 백두년(白頭年 : 머리가 하얗게 된 나이)이 되었구나.
 몇 번이나 목숨을 끊으려다 이루지 못했도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오늘날 참으로 어찌할 수 없고 보니

가물거리는 촛불이 창천(蒼天 : 맑고 푸른 하늘)에 비치도다. - 순명에 대한 결심

3수

鳥獸哀鳴海岳嘯 (조수애명해악빈)

槿花世界已沈淪 (근화세계이침륜)

秋燈掩卷懷千古 (추등엄권회천고)

難作人間識字人 (난작인간식자인)

새 짐승도 슬피 울고 강산도 찡그리니.[국권 피탈의 치욕을 자연물과 새, 짐승을 통해 구체화한 표현이다. 번역 과정에서 '새와 짐승들'을 '새짐승'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 감정이입]

무궁화 온 세상이 이젠 망해 버렸어라.[무궁화는 우리 나라를 뜻하는 대유적 표현이므로 곧 나라가 망해 버렸다는 뜻]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지난 날 생각하니,['등불'과 '책'에서이 시와 화자가 지식인임을 알 수 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책을 덮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다. 어려운 역사적 현실 속에서의 작자의 고민이 드러난다.]

인간 세상에 글 아는 사람 노릇, 어렵기도 하구나.[글 아는 사람은 지식인을 의미하고, 어렵기도 하구나는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말함] - 지식인으로서의 자책

● 압운 : 嘯(빈), 淪(륜), 人(인)

● 구성 :

1행 - 국권 피탈의 비극성을 자연물에 감정 이입하여 표현

2행 - 망국의 비애 노래

3행 - 자신의 소임을 생각

4행 - 지식인으로 살아가는 일의 어려움

[미래엔문학2] 추억에서

진주 장터 ❶생어물전에는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 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발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❷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달빛 받은 ❸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 ”(1961)